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8th FLOOR
TORONTO, CANADA M5S 1A5
JUL 16 1982

(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한국일보 토론토

No. 873 1982년 7월 13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Tuesday, July 13, 1982

◆이태리의 파올로·로씨가 옆으로 낮게 날아오는 볼을 달려들며 헤딩 숏한 후 앞으로 넘어지고 있다. 볼은 문' 앞에서 한번 바운스하며 네트에 꽂혔다. 이태리는 로씨의 선제골에 힘입어 서독에게 3:1로 승리, 세계 축구의 정상을 재탈환했다.

월드컵은 이태리로

로씨의 첫골 힘입어 44년만에 재탈환
루메니게 부상, 서독 3:1로 굴복

11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82년 월드컵축구 최종결승전에서 이태리는 3:1로 서독을 따돌리고 44년만에 순금의 월드컵을 쟁취했다.

34년과 38년 무솔리니 정권하에서 우승한 이태리는 이로써 58년, 62년, 70년 우승한 브라질과 함께 월드컵 3승의 기록을 세웠다.

주심의 경기종료 호각이 울리자 이태리선수들은 환호를 하며 서로 얼싸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린 반면 서독선수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멍하니 이태리선수들을 바라보았다.

이날 경기를 관람한 이태리 대통령 산드로·페르티니(86)는 노구에도 불구, 이태리가 골을 넣을 때마다 일어나 박수를 치며 이태리선수들을 성원했다. 서독의 헬무트·슈미트 수상도 이날 참석, 서독을 응원했다.

이태리팀 주장이며 월드컵에 4번이나 출전한 노장 골키퍼 디노·조프(40)가 스페인국왕 후앙 카를로스가 수여하는 월드컵(줄리메배)을 번쩍 쳐들자 3만5천명의 이태리응원단이 내두르는 빨강, 하양, 녹색등 삼색의 이태리 국기들이 파도치듯 휘날리며 나팔소리, 환호소리에 운동장이 떠나갈듯 하였다. 이날 10만명의 관중이 결승전을 관람했고, 1억명의 전세계 축구팬들이 TV로 중계되는 게임을 구경했다. 디노·조프는 '우리는 월드컵 우승을 위해서만 뛴것이 아니다. 우리 가족과 모든 이태리팬들을 위해 싸웠으며 실력이 낫기 때문에 이겼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이날 경기의 제1급 수훈선수는 이태리 축구의 영웅 파올로·로씨. 로씨는 양팀의 전반전 무득점의 팽팽한 균형을 깨고, 프리킥을 얻은 젠틸레가 오른쪽 골라인 근처에서 낮게 골문앞으로 패스한 볼을 달려드는 서독선수들을 제치고 앞으로 헤딩숏, 골문에 꽂았다.

이태리는 전반 45분간 주도권을 서독에게 뺏긴채 고전을 면치 못했다. 전반 7분만에 공격수 프란세스코·그라지아니가 부상으로 퇴장하고 전반 26분만에 가브리니가 절호의 득점찬스인 페날티숏에 실패, 이태리우승에 치명상을 입히는듯 했다.

로씨의 선제점에 사기백배한 이태리진영은 후반 24분, 베르고미가 페날티지역 구석에서 씨레아에게 패스한 볼을 씨레아는 타르델리에게 패스, 골문 왼쪽 18미터전방에 있던 타르델리는 옆으로 넘어지면서 왼쪽발로 골문 오른쪽 구석에 강렬한 논·스톱 킥을 날려 서독 골키퍼 하랄드·슈마커를 멍하게 만들었다. 타르델리는 이 게임의 MVP(최우수선수)로 지명됐다.

이태리의 2번째골이 성공된 후 바로 서독의 맹장 루메니게는 옆구리부상으로 한시·밀러와 교체돼 서독의 전력은 더욱 약화됐다.

이태리의 마지막 골은 교체선수 알토벨리가 경기종료 9분을 남겨놓고 콘티의 패스를 받아 성공시켰다.

서독은 로씨에 첫 골을 뺏긴 후 전면공격을 감행했으나 철통같은 이태리의 수비를 뚫지 못하고 오히려 수비상의 허점을 보여 이태리의 역습을 당하곤 했다. 서독은 후반 끝날 무렵 파울·브라이트너의 한골로 영패를 면했다.

서독 코취 유프·더발은 경기가 끝난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태리는 충분히 우승의 영광를 누릴만 하다. 그들은 후반 45분동안 놀랄만한 위력을 보였다. 우리는 철통같은 이태리 수비를 뚫지 못하고 역습을 당한 것이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4일전 프랑스와의 격렬한 준결승전으로 선수들이 지친 영향도 있으나 무엇보다도 로씨의 놀라운 선제골이 승부를 결정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태리 코취 엔조·베아로조트는"우리는 이미 여러 호적수를 쓰러뜨렸으며 승리에의 투지가 만만했다. 알젠틴과의 대전에서 승리하자 우승에의 길이 보였다"고 말했다.

이태리 축구영웅 로씨는 이날 한골을 더 추가, 총 6골을 넣어 결승토너멘트 최다득점자가 됐다. 로씨는 준준결, 준결, 결승 3게임에서 이태리가 넣은 7개골중 결승 2번째 타르델리의 골을 제외한 6개를 혼자 득점했다.

은하 보석
ROLEX
대리점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반금와상품
☎ 534 9977.7791 620A Bloor St. W.

캐나다한국
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2-8593

Merrill Lynch Royal Seurities Ltd.
금·은·증권·Bonds·RRSP에 대한 투자는
361-3428(B), 447-1374(R): 김상욱
증권은 경기변동에 따라 움직이는 특성이 있는데 경기회복 6개월 전부터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많은 투자 전문가들은 말하기를 "일, 이십년만에 한번 올수있는 절호의 기회가 증권투자에 오고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 근거는 무엇인가?

◆11일 하오 이태리안 리리 세인트·클레어 애비뉴는 이태리 국기로 완전히 뒤덮혔다. 메트로·토론토의 45만 이태리계 캐네디언들은 이태리가 월드컵 축구를 제패하자 축제의 분위기가 되었다. 원내는 이태리 축구영웅 파올로·로씨.

(관계기사 2면에)

韓國, 中共과 간접무역
C.S.모니터紙 보도

한국은 중공과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나 일본을 통한 간접적인 무역교섭을 벌여 오고있다고 크리스찬·사이언스 모니터지가 보도했다.

동유럽공산국가와도 무역교섭을 해온 한국은 최근 대중공무역교섭이 특별한것으로 보이지않으나 30년전의 한국동란이후 적대국으로 서로행사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정부는 피흘렸던 과거의 쓰라린 경험을 덮어버리려는 암시를 주고있다.

한국은 경제발전을 뒷받침할 석유, 석탄, 우라늄같은 천연자원의 도입과 대량제조품판매시장을 인접국가에서 찾으려는 노력으로서 중공에 접근하는것 같다고 동지는 분석했다.

김영숙씨 첫선

민족상 시상식 17일

오는 17일(토)로 다가온 제2회 한인민족상 시상식에서 예술상 수상자인 에드몬톤의 김영숙여사가 수상기념으로 시상식장에서 창과 무용을 선보인다.

김여사는 고전무용과 국악전공의 민속예술가로서 토론토에서 자기 예술을 보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족상시상식은 애초 6월26일로 계획되었으나, 지방거주 3명의 수상자가 모두 참여할 수 없어 이번 주말로 연기된 것이다.

하오4시 토론토한인회관(20Mobile Dr, 에그린톤×Bermondsey)에서의 시상식후 같은 자리에서 칵테일·파티가 열린다. 한인민족상위원회(위원장 구상회)가 마련하는 이날 행사에는 지방거주 수상자(학술상 권오율:사스케치완주 르자이나, 봉사상 김원겸:마니토바주 위니펙, 예술상 김영숙:알버타주 에드몬톤, 공로상 박재선:토론토)가 모두 참석한다.

◆토론토에서는 처음으로 예술을 보여줄 김영숙씨가 부채춤을 추고 있다.

한국일보
533-2361

토론토발행인 : 김영규
편 집 인 : 이석현
인 쇄 인 : 박정서
광고국장 : 송광호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537-3171
537-3174
484 BLOOR ST. W.
(Bloor & Bathurst)

강학수 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여름철 특별세일
7월10일(토)~8월7일(토)까지 (1달간)
45% Off!
고급 Noritake 홈셋

교민에게 파격적인 봉사
40% Off
고급 보헤미아 크리스탈
고급 불란서 크리스탈

※이외에도 각종 대나무제품및 그림을 취급합니다.
STORE OPEN 시간 월·화·수·토: 오전10시~오후6시
목·금 : 오전10시~오후9시
The Sol Fine Gift Store
1032 St. Clair Ave. W. (Oakwood에서 1block 서쪽)
☎: 656-4315 Mrs. 최

DEAR MAILPERSON: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팬암기 주택가에 추락
승객·주민 153명 사망

(뉴올린스)팬암항공기 보잉 727기가 승객1백43명을 태우고 9일 하오4시10분(현지시간) 뉴올린스공항을 이륙한 직후 인근 주택가에 추락해 최소한 8채의 주택이 전소되고 153명 사망했다고 연방항공국이 발표했다.

공항 당국자에 의하면 이날 마이애미를 출발, 샌디에고로 향하던 팬암(제759호)은 중간기착지인 뉴올린스공항에서 이륙, 활주로에서 약 2마일가량 비상후 주택가에 추락했다.

이날 팬암기 이륙당시 공항주위는 심한 폭풍우와 번개가 몰아쳐 항공기엔진을 정지시켜 추락당한 것으로 관계자는 추정하고 있다.

이날 비행기는 갑자기 곤두박질하면서 폭음을 내고 지상에 추락, 검은 연기를 내뿜었다고 한 목격자가 밝혔다.

추락지역인 케너교외는 항공기잔해가 흩어졌고 동체는 엿가락처럼 휘어져 끔찍한 참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망자 대부분은 의자에 앉은채 불길에 타 죽었고, 집안에 앉아있다

비행기동체에 눌려 죽은 사람들도 있었다.

"지옥이 바로 이런 모습"일 것이라고 말한 한 구조대원은 소파위에 비행기 바퀴가 뒹구는 와중에서 10개월된 아기가 무사히 구조되자 기쁨의 환성을 지르기도 했다.

미연방항공국(FAA)은 이날 이륙시 번개와 폭풍우가 앞을 가릴 정도로 악조건인 날씨에 비행기 이륙허가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153명의 목숨과 주택8채를 삼킨 727기 추락현장. 구조반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뒹구는 어린이 장난감도 처절하다.

45만명 토론토 이태리안들
자정까지 요란한 축제

(1면에서)

이태리의 월드컵 우승으로 이태리본토뿐 아니라 전세계에 흩어져 사는 이태리사람들은 흥분의 물결에 휩싸였다.

"비토리아(Vittoria: 승리)", "브라보"(Bravo: 잘한다), "비바·이탈리아"(Viva Italia: 이태리 만세), "로씨!로씨!"(Rossi: 이태리의 우승에 수훈을 세운 축구선수)를 외쳐대며, 쏟아져 나온 이탈리안들로 전세계는 떠들썩했다.

이태리수도 로마는 힘차게 울려대는 교회종소리와, 뱃고동소리, 자동차경적소리, 사람들의 환호와 노래로 축제의 도시로 일변했다.

이같은 현상은 호주의 멜보른, 시드니, 미국의 뉴욕, 보스톤등 이탈리안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나 똑같았다.

토론토의 45만명 이탈리안들도 예외는 아니었다. 토론토 이탈리안들은 서독과의 결승전이 끝난 하오4시쯤 차에 삼색기를 달고 경적을 울리며, 온통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같은 광경은 2차대전이후, 토론토에서는 처음보는 소동이었다.

이태리인들이 몰려사는 세인트·클레어거리는 완전히 교통이 차단되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리로 뛰쳐나온 이탈리안들은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이태리노래와 디스코에 맞추어 춤과 노래로 한껏 고조된 기쁨을 표현했다.

세인트·클레어와 댄스다운의 얼스코트 공원에 약속이난 한듯이 모인 3만 이탈리안 인파가 "휘두르는 녹색, 백색, 적색의 이태리국기들의 파도를 보는 자니·롬바트리씨는(CHIN 방송국 사장, 토론토 이탈리안 거물급인사중 하나)의 눈에는 눈물이 흥건히 괴어 있었다.

롬바르디는 "생전처음으로 이같은 감격적이고, 놀라운 경험을 보았다. 이탈리안에게 축구경기는 경기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우리(이탈리안) 모두를 한데 모으고 우리에게 이탈리아이 된 자부심을 불어넣어 주었다"고 감격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이같은 축제에 맞춰 토론토시, 노스·욕, 이토비콕은 12일 시청에 이태리국기를 게양했다.

축제의 본거지는 칼레도니아·로드와, 옥우드 아베뉴사이의 세인트·클레어 아베뉴선상 15블럭으로 이곳은 수시간동안 차량통행이 중단됐었다.

이날 얼스코트공원에 나온 토론토시장 아트·이글톤은 "지금껏 토론토에 살아왔지만 이같은 거대하고 자연스러운 축제는 본 일이 없다"고 말했다.

이날 축제로 수명이 혼란조성으로 체포되었으며, 적어도 한명은 경찰폭행으로 입건됐다.

윤정훈군 수석
스포츠에도 탁월

◆윤정훈군.

금년도 캐나다미스·코리아 "선" 윤혜련양의 동생 정훈(Richard)군이 퀸·알렉산드라중학교를 수석졸업, 상패와 부상으로 금일봉을 받았다.

금년 14세인 정훈군은 75년 이민, 상점을 경영하는 윤재용·권숙자씨의 2남1녀중 막내이다. 키 178cm의 정훈군은 스포츠에도 탁월, 금년 1년간에 스포츠상 7개를 받았고, 수학에도 뛰어났다. 희망직종은 변호사, 책읽기가 취미이다.

온타리오배구리그 출전
토론토·코리안즈 2연승
전 국가대표 이경애씨 코치

온타리오주 여름배구리그에 출전한 교포청소년배구팀 토론토·코리안즈는 8일 「브라말리아·웩커즈」와 「윌로우데일·위저드」를 셋 스코아 3:0, 2:1로 각각 물리치고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남자부 시니어 B조 소속 코리안즈는 오는 8월12일까지 예선 9게임을 가지며 결승 토나먼트는 8월26일 열린다.

코리안즈는 지난 3월 창단된 한인배구협회(회장 문영환)가 정기섭, 석남일군등 배구에 소질있는 교포청소년을 중심으로 조직한 팀으로 지난 5월부터 전한국국가대표선수 이경애(29)씨의 지도를 받아 왔다.

무보수로 코치하는 이씨는 72년 뮌헨올림픽에 출전, 한국팀은 동메달을 받았다.

작년 8월 스카보로의 상섭 여자배구팀 「솔로」주선으로 이민온 이코치는 스카보로팀에서 선수겸 코치로 활약, 「솔로」를 81년 온타리오 동계배구리그에서 우승시켰었다.

이코치는 중앙여고, 산업은행 배구팀의 라이트(Right) 주공격수로 활약했다.

문영환 배구협회장은 '여름리그는 일종의 재미를 위한 것으로 토론토·코리안즈 선수들이 원하고 여건이 허락하면 온타리오 공식배구리그인 동계리그에 출전하는 것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다. 문씨는 10년전 토론토교민 배구애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팀이 3년을 온타리오 동계리그 남자부 B조에서 우승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코리안즈가 훌륭한 코치밑에서 착실히 실력만 쌓으면 동계리그 남자부 A조에서도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온타리오 동계및 하계리그는 다같이 실력수준에 따라 중간B(Intermediate B), A, 시니어 B(Senior B), A, AA로 나누어진다.

토론토·코리안즈의 경기일정은 아래와 같다.〈장소는 하보드고교(하보드×유크릿 소재)〉

◆7월15일 게임 3	하오 8	
◆ 22일 게임 4	7	
◆ 게임 5	9	
◆ 29일 게임 6	9	
◆8월 5일 게임 7	7	
◆ 12일 게임 8	7	
◆ 19일 게임 9	8	
◆ 26일 준준결승	7	
준결승	8	
결 승	9	

박재형씨 딸 수연양
8학년 1등 졸업

박수연(13)양이 지난 24일 스카보로의 브룩스·로드 퍼블릭·스쿨 8학년을 1등 졸업했다. 9년전인 4살때 이민온 수연양은 언니와 여동생등 딸만 셋인 박재형씨 가족의 자랑거리.

박수연(13)양

한인의 외국인과의 결혼
이민사 길수록 증가추세

(LA지사)한국사람들은 이민역사가 길어질수록 외국인과의 결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것이 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

UCLA 사회교수 Harry H. L.기타노 박사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과의 결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인 2세, 3세가 자라나고 있는 하와이의 경우 79년·80년 두해동안 결혼한 한국인중 90%가 배우자로 외국인을 택했다. 또한 아직 이민1대가 거주하는 LA에서는 같은 기간동안 30%가 국제결혼을 했다.

UCLA에서 사회학과 사회복지과목을 강의하고 있는 기타노 박사는 중국과 일본계 이민자들에 대하 조사도 함께 했는데, 중국계는 한국인들과 비슷한 비율인 LA에서 40%, 하와이에서 80%가 국제결혼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거의 이민3세로 이루어진 일본계는 LA에서 60%, 하와이에서 55%를 기록, 같은 세대의 한국, 중국인들보다 낮은 외국인과의 결혼율을 보였다.

기타노 박사는 2차대전후 외국인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안이 미국에서 폐지되자, 타민족간의 결혼이 계속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흑인의 경우 타인종과의 결혼율이 20%미만으로 밝혀져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 민 동 정

◆전경수(사진협회장) 오는 13일(화) 사진협회 임원(임정재, 이기송, 김영선, 이성준)들과 8박9일 예정으로, 촬영여행을 떠난다.

앞으로 사진 전시회및 협회발전을 위해 여행을 자주 갖기로 했다고.

위급전화

9 1 1

캐나다를 압시다… 자랑거리 115개(2)
매킨토쉬 사과·토론토 전차
작가 마가렛·로렌스, 가수 앤·머리

12)올빼미 사육연구재단(The Owl Rehabilitation Research Foundation)

온타리오주 세인트·캐서린 부근에 있는 야생올빼미 사육전문기관, 북미 또는 세계 유일의 기관으로 올빼미에 관한한 세계 최고의 권위가 있다.

13)마가렛·로렌스(여류작가)

바위 천사(The Stone Angel), 예언자들(The Diviners)등의 소설로 유명한 세계적 작가. "캐나다의 명예를 전세계에 떨치는데 공헌한 소설가로 아름다운 비전을 가진 여성"이라는 평을 듣는다.

14)온타리오주 사니아의 "화학의 계곡"(Chemical Valley)

정유소등 석유화학공장이 밀집된 곳으로 아름다운 휴론호수 해변들과 접해 있다. 중화학산업이 자연환경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조화를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본보기이다.

15)케입·아일랜드의 어선

1905년 노바·스코시아 케입·세이블(Cape Sable)섬에 사는 선박설계사 에프레임·앗킨슨씨가 만든 어선들로 지극히 안정되고 튼튼하다. 캐나다 동서해안서 현재 널리 사용된다.

16)이언·흄

1955년 캐나다에서 가장 뛰어난 높이뛰기 선수였고 당대의 가장 훌륭한 육상선수로 꼽혔다. 작년 66세때 세계 노장육상대회에 출전, 금메달 3개, 은메달 3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17)오레이클·턴테이블(The Oracle Turntable)

17.
The Oracle Turntable

「국제·오디오·리뷰」지가 선정한 세계최고의 턴·테이블. 퀘벡의 셔브룩대학의 철학교수였던 마셀·리엔도씨가 디자인한 것으로 전세계에서 주문이 쇄도하고 있다.

18)뱅쿠버·아일랜드의 「롱·비치」해변

숲, 안개, 모래가 잘 조화를 이루는 이 해변의 아름다움은 많은 사람들의 글에서도 증명됐다.

18.
– Long Beach, Vancouver Island –

19)매킨토쉬 사과

19.
The McIntosh Apple

1811년 온타리오의 존·매킨토쉬씨가 개발한 사과품종. 북미에서만 생산되는 이 빨간 사과는 달콤하며 물이 많아 최고 품종중의 하나로 꼽힌다.

20)CBC래디오 방송

47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CBC방송(국영)은 현재 주 490만 청취자를 확보하고 있다.

21)P.E.I. 감자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산 감자는 세계최고 감자중의 하나로 꼽히며 포슬포슬한 맛이 프렌치·프라이에는 최고.

22)승마용 말 노선·댄서

1961년 토론토에서 태어난 말로 세계 경마의 질을 바꿨다. 승마용 말로는 최고의 종마로서 한번 교접에 사상최고인 $25만을 받는다. 그의 새끼들은 17개대회에서 챔피언이 됐고 83개의 경마에서 우승했다.

22.
Northern Dancer

23)세인트·조셉스·헤리티지

온타리오 선더·베이에 있는 세인트·조셉스·헤리티지(St. Joseph's Heritage) 아파트는 노인과 신체장애자전용 아파트로 시설이 최고. 수영장, 사우나는 물론, 체육관, 볼링장, 스쿼시·룸, 사진현상실, 도자기실, 온실, 도서실, 코뮤니티센터, 조깅트랙, 타아소및 일류급 식당을 갖추었다.

24)캐나다 팔(Canadarm)

지난 3월 우주왕복선 콜럼비아에 장치됐던 로보트 팔 Canadarm은 성공적인 임무수행으로 캐나다의 정교한 기술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토론토 소재 회사서 제조.

24.
Canadarm

25)전차

북미최초로 1885년 토론토에서 처음 운행한 전차기술에 관한한 토론토가 세계 최고이다.

25.
Streetcars

26)핫·크릭 온천

브리티쉬·콜럼비아의 주립공원에 있는 이 온천은 자연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산꼭대기에서 흘러나오며 숲과 바위에 감춰져 있는 명소.

27)앤·머리(팝송가수)

무리없이 시원스럽게 흘러나오는 그녀의 목소리는 캐나다 팝송계의 최고상인 주노상 18개, 미국의 그래미상 3개를 타게했다.

그녀의 음반 28개가 전세계에서 금반 혹은 백금반으로 기록됐다.

28)라이카 사진기

35미리 카메라로 세계 최우수품으로 꼽히는 라이카 사진기중 거리측정기 M4-P는 30여년간 온타리오주 미들랜드에서 만들어졌다. 이는 캐나다의 광학기술이 어느 정도인가를 증명해준다.

29)오스카·피터슨(재즈연주자)

몬트리얼에서 태어나 현재 미시사가에 살고 있는 오스카·피터슨은 50년대이후 재즈음악계의 거장이다. (계 속)

中東 同門
정기야유회및 낚시대회

금년도 중동 동문회에서는 정기야유회및 낚시대회를 아래와 같이 갖고자하오니, 동문여러분께서는 가족과 함께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일 시 : 1982년7월18일(일) 아침 10시
◉장 소 : Glen Haffy Conservation Park
(HWY 7과 Air Port Rd. 만나는 지점에서 10마일 북쪽에 위치함)
◉준비물 : 각자 점심및 낚시도구
(상품및 드링크는 동문회에서 준비함)
◉연락처 : 홍사겸 742-5672
이용석 363-3687
신경식 439-3690

중동동문회 회장 홍 사 겸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밍 크
여름철 특별세일

지금 당신은 가장 싼 값으로 신용있는 밍크를 구입할 수 있읍니다.

저희는 자체 공장시설을 갖춘 50년 역사의 회사로써 쇼우·룸을 갖추고 여러분을 모시려고 하오니 일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단, 오시기전 약속시간을 정해야 합니다.)

Trade-in 가능합니다.
옷을 마음대로 고칠 수 있읍니다(repair, clean등)
온갖 종류의 밍크를 취급합니다(model)

Sincere Service to Sincere people

1978 Weston Rd. 정성주
(로렌스에서 one block 북쪽)
☎ : 241-8091, 241-3952

종합보험

김 흥 량

● 생명보험
● 자동차보험
● 주택, 상점보험
● 사업보험
● R. R. S. P.
● INCOME AVERAGING ANNUITY
● PENSION

FINANCIAL & INSURANCE CONSULTANT
961-3774(B)
277-8733(B)
624-2103(R)

IMPERIAL LIFE

The Imperial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Suite507, 586 Eglinton Av. E.
Tor. Ont. M4P 1P2

● CAPITAL GAIN, 높은 소득으로 인한 높은 세금의 조절및 경감방안
● 기업계승에 따른 문제처리
● 생활안정금고

「바바라」에 물으세요

이것이 북미생활이다

◆필자 : 바바라여사

자기를 올바로 평가할 사람에 추천서 의뢰를

보스의 호의 지나치다 여기면 초대거절할수도

○문: 일자리를 바꾸기로 마음먹고 캐네디언 고용주에게 추천서를 써달라고 부탁하려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가좋게만 써줄지 의심스럽군요. 스스로 성실히 일해왔다고 생각하지만 새고용주에 추천서를 보내기전에 제가 한번 볼수 있는건지요.?

(오렌지빌 YB)

●답: 캐나다서는 보통 추천서의뢰라면 기밀사항으로 취급하므로 현고용주로부터 새고용주에게 직접 보내지게 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몇몇 경우가 아니라면 자신의 추천서를 볼수 없읍니다. 즉 ▲현고용주가 추천서 내용을 설명해주든가 ▲추천서를 읽도록 해주든가(이것은 '거의 드문 예입니다만) ▲당신의 인적서류가 평소 어떻게 기재되었는지 보여주든가(이 역시 드문일입니다)등입니다. 추천서는 진실을 말해줄 것이라고 믿어도 될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신의 일에 공평무사하게 평가해줄 수 있다고 믿는 사람에게 부탁하는 것이 도움이 될것입니다.

○문: 작은 사무실의 사람좋은 보스밑에서 비서로 일하고 있읍니다. 최근 며칠동안 일이 많아서 밤늦게까지 근무했는데 그다음날 보스가 고맙다는 표시로 밖에서 저녁식사를 하자더군요. 결혼한 여성인 내 입장에서 약간 신경이 쓰이는데다가 그가 내게 대해 그릇된 생각을 가졌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거절했읍니다. 그랬더니 다음날은 내게 꽃을 선사했읍니다. 식사초대를 거절한 것은 잘못일까요?(남편에겐 묻지 않았읍니다.)

(다운타운 이른이엄마)

●답: 신경이 쓰여지는 일에 대해 거절한것은 바른일이며 보스도 이해할것이 틀림없읍니다. 당신의 말로 미뤄보면 보스는「그릇된 생각」은 없고, 다만 당신의 시간외 근무노력을 보답해주는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군요. 꽃을 보낸것도 마찬가지 의도인 것 같습니다.

만일 또 그런일로 해서 보스가 저녁식사를 제의한다면 식구들과 저녁을 들어야하니 대신 점심이 좋겠다고 제안해 보시죠.

보스가 결혼한 비서를 저녁식사에 초대(남편의 인정을 받은후에)하는 경우는 흔히 있으며 꼭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다만 보스가 지나치게 가까이하려는 듯한 느낌이 들면 초대를 거절하는게 현명합니다.

○문: 작은 일이지만 실망이 되어 문의드립니다. 지난 주말 비공식적인 토론모임에 참석해 교양있다고 믿어지는 많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읍니다. 그런데 내가 한국에서 왔다고 했으나 대부분 한국이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데 아연하더군요. 베트남이나 남태평양 어디쯤 있지 않냐고 되묻는 것이었읍니다. 한국전쟁으로 서양인들이 한국을 잘 알줄 믿었었는데 그런 무지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해야 되겠읍니까?

(미시사가 고민생)

●답: 성급히 나무라기보다 잠시 이해를 가지세요. 이곳 사람들중 지리공부에 등한하고 TV뉴스를 보면서도 세계에 대한 막연한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귀하자신에 관해 소개할 때에는 약간의 지리적인 것도 곁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은 알라스카에서 멀지않은 일본다음에 있다… 그리고 알라스카가 어딘지 모르는 사람이 있다면… 자, 그 사람에게 뭔가 다른 얘기를 해야겠지요.

한국을 베트남과 혼동하는 것은 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을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조국에 관해 그 특징을 말해주는 것은 그들의 교양교육에도 도움이 될것입니다.

冷血 ⑨

金聖鍾 作

"Y은행 온라인에 5백만원 입금시켜라"

그러나 그가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동안 그녀는 죽은듯이 누워있었다. 조금도 반응이 일지 않는다. 당연한 일이었다.

『어때? 기분이 어때?』

남편이 정열적으로 속삭였다.

『좋아요.』

그녀는 힘없이 중얼거렸다.

『그럼 왜 가만 있는 거야?』

그녀는 비로소 남편의 기분을 맞춰줄 필요를 느꼈다. 다리를 들어 그를 휘어감으면서 하체를 조금씩 뒤틀었다. 그러자 남편은 거품처럼 일어섰다가 금방 무너져 내렸다.

옆에 엎어져 헐떡거리는 남편을 보고있는동안 그녀는 어느새 모세를 생각하고 있었다. 자연 남편과 모세가 비교되는 것이었다. 남편이 어린소년이라면 모세는 단련될대로 단련된 남성이었다. 모세를 경험한 지금 남편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문전만 더럽힐뿐이다. 아 비교해서는 안되는것이었다. 그러나 자꾸만 비교가 되는 것이었다. "아, 나는 악녀일까. 나는 어디까지 악녀이고 어디까지 선녀일까."

그녀는 돌아누워 새우처럼 웅크렸다. 갑자기 눈물이 나왔다. 베개가 축축히 젖을 때까지 그녀는 소리를 죽여가며 울었다.

다음날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샌 문자는 10시경에 또 모세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떨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50만원을 가지고 나를 찾을 생각이었나? 떼먹지 못한 넉 메모지와 연필을 준비해.』

그녀는 시키는대로 메모지와 연필을 준비했다.

『준비됐으면 받아적어. 55-42-930-5, 이건 Y은행 온라인 넘버다. 내일중으로 이 넘버에다 5백만원을 입금시켜. 그리고 오늘 12시까지 W호텔에와서 호텔비를 계산해, 프런트에 계산이 나와 있을거야. 내가 나가는데 지장이없도록 해.』

『경찰에 고발할 거예요.』

그녀는 가만히 속삭였다.

『맘대로 해.』

『5백으로 그친다면 고발 안할수도 있어요.』

『까부는군, 또 맞고 싶나?』

『이젠 맞지않을 거예요.』

『한기수를 만나볼까? 일요일이라 집에 있겠지.』

그녀는 발작하듯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마침내 악마의 본색이 드러난 것같았다. 제비족 치고는 가장 악질한테걸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50만원을 내놓을 때는 돈같은 거 필요하지 않다고했다. 그런데지금은 그 열배인5백만원을 내놓으라는 거다. 그것도 자기거래은행의온라인 구좌에.

그녀는 이마에 밴 땀을 손등으로 문질렀다. 그때 정원에서 잔디를 손질하고 있던 남편이 들어왔다.

『무슨 전화야? 당신 왜 그렇게 창백해?』

정원에서 전화벨소리를 들은 것같았다. 그녀가 피해가려고 하자 팔을 잡았다.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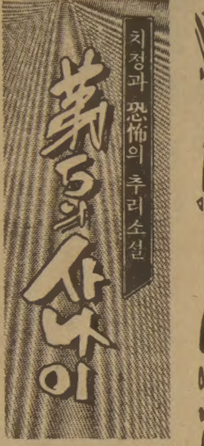
『창백한데그래. 무슨 전화야?』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속자가 안좋은가봐요.』

『어제 차에 치인 친구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朴 男 그림



<25>

◇TV시리즈 "Falcon Crest" 에서 메리사 컴진역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산안토니오 출신의 흑발미녀 애나 앨리시아양이 8일 부터 방영된 두 집안의 포도주산업 주도권 쟁탈을 그린 드라마의 주연을 맡게 되었다.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영구구독 : $500,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한국일보는 가장 넓은 지역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일간신문입니다

프로축구 블리쟈드를 즐기자

입장권 한국일보사 533－2361

예매처 브랜돈스포츠 598－3732

빅·세븐선물센타

각종한약 우황청심환 화장품등

533－7966 김 영 철

VOLKSWAGEN & AUDI

손 명 철(MICHAEL SON)

RABBIT STARTS FROM $6,990.00

- RABBIT CONVERTIBLE
- VOLKS JETTA
- SCIROCCO SPORTS COUPE
- VOLKSWAGON VANWAGON CAMPER
- AUDI 4,000 FUEL INJECTION
- AUDI 5,000 TURBO
- AUDI TURBO DIESEL
- AUDI 4,000 SPORTS COUPE
- COUTTRO 4 WHEEL DRIVE.

LEASING ALL MAKES !

CEDARBRAE VOLKSWAGON LTD

666 MARKHAM ROAD At Lawrence SCARBOROUGH,

MICHAEL SON 손 명 철

전화 : (416) 438－1900 (B, 499－8589 (R

Rabbit

世界가 異常가뭄 몸살

한국·濠·유럽·中共등 穀物 생산에 큰 打擊

【워싱턴7日聯合】 濠洲·유럽·印度·韓國·中共·소련등 세계 많은 지역에 걸쳐 계속되고있는 이상가뭄으로 금년도 밀등 곡물류의 작황이 큰피해를 입을것으로 전망된다고 美농업기상청이 7일 밝혔다.

美농무성과 상무성이 공동운영하고있는 美농업기상청은 韓國등지에 가뭄이 계속돼 벼농사에 타격을 받고있으며 관개용수의 공급이 달리고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주요 밀수출국인 濠洲의경우 밀경작지역인 동부지역에 비가 거의 내리지않아 금년도 밀생산량이 극히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고 농업기상청이 밝혔다.

이밖에 印度의 서북부및서부지역에도 금년들어 아직까지 우기가 시작되지않아 관개용수의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며 소련도 동부지역에 가뭄이 계속돼 연4년째 흉작을 면치못할 것으로 이 기상청은 전망했다.

또한 이탈리아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등 유럽지역과 中共의 만주지방등도 가뭄피해가 심한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가뭄피해 지역

蘇 4년째… 올해도"凶作"

해설 北極의 寒冷化현상이 氣象이변의 主因

偏西風 꿈틀꿈틀 蛇行하며 가뭄몰아와

기상학자들은 세계적인 기상이상현상을 태양흑점주기의 이변, 지구의 軸이동, 地磁氣의 감소, 인간활동으로 인한 공기중의 탄산가스량의 증가, 북극의 寒冷化등에 돌리고 있다.

이중 우리나라가 속해있는 중위도(中緯度) 지방의 이상기상현상과 가장 밀접한관계를 맺고 있는것으로 보는것은 북극의 한랭화현상. 중위도 상공엔 西에서 東으로 부는 偏西風帶가 있다. 이 편서풍은 북극의 한기가 약화되었을땐 상당히 고위도 지방의 상공을 帶狀으로 西에서 東으로 진행(東西流型)한다. 그러나 한랭화가 진행되면서 이같은 현상이 뒤틀린다. 어느지역은 寒氣가 남쪽으로 처져내려와 중위도까지 뻗치는가하면 반대로 暖氣가 南으로부터 北上한다. 이렇게 되면 편서풍은 南北으로 큰 소용돌이를 치면서 뱀이 기어가듯 꿈틀꿈틀 蛇行(南北流型)하게된다.

이에따라 난기가 북상하는 곳에서는 熱波나 한발이, 한기가 남하하는 곳에서는 한파나 대설이 나타나기쉽다. 또 난기와 한기가 서로 이웃하는 인접지역에선 큰비나 집중 호우가내리기 쉽다. 이때문에 한발이있는 바로이웃에서 큰비가 내려 홍수가 나게된다는 불공평한 이변이 나게된다는 설명이다. 기상학자들은 최근의 이상기상은 地球가 60년을 고비로 寒冷期로 접어든 과도기를 겪고있기때문이 아닌가 보고있다. 【李光榮기자】

嶺湖南 단비 질금질금

長興 1百7㎜… 장마 15일後에

中部일부도

가뭄극복작전을 펴고있는 영호남등 중부이남지역에 7일 하오부터 소나기성 단비가 내렸다. 강우량은 8일새벽까지 충남儒城의 1백11㎜를 비롯, 전남長興郡有治面의 1백7·7㎜, 和順邑 41·5㎜, 居昌郡 44㎜등으로 지역에 따라서는 해갈에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이번 비는 지역에 따라 강우량에 많은 차이를 보여, 비가 내리지 않은 지역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했다.

전남지방은 67개邑面에 최고 1백7·7㎜에서 10·6㎜까지 내렸고 경북지방은 善山·漆谷·義城지방에 최고 29㎜, 전북의 長水·南原·任實·鎭安등 산간지방에 평균 33·4㎜가 쏟아져 목타는 논밭을 적셔 주었다. 경남지방은 서부 居昌·陜川·山淸·河東·咸陽·金海·義昌·晋州郡등 10개군 27개면에 최고 44㎜에서 최하 0·2㎜가 내렸고 충남의 大田·錦山·大德·論山에도 소나기가 한차례 쏟아졌다.

한편 중앙기상대는 8일 당분간 흡족한비는 기대할수없으나 11일부터 흐리고 한차례 소나기가온후 12일에는 전국적으로 약간의비가오며 이런날씨가 15일까지계속돼 국지적으로 해갈에 도움이되겠다고 예보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장마는 15일 이후에나 기대할수있다고 밝혔다.

社会漫評

골라가며 뿌리기로…

밀가루값 5.2% 引下

오늘부터 1等品 22kg 5천3백90원으로

◇밀가루價格表 (22kg들이袋當소매가격基準)

	普通 밀가루 1 等	普通 밀가루 2 等	普通 밀가루 3 等	準強力 밀가루 1 等	準強力 밀가루 2 等	準強力 밀가루 3 等
現行	5,680	5,080	4,630	5,970	5,320	4,860
調整	5,390	4,900	4,480	5,670	5,120	4,700
引下 額	△280	△180	△150	△300	△200	△160
引下 率(%)	△4·9	△3·5	△3·2	△5·0	△3·8	△3·3

정부는 국제 밀시세의 하락및 국내금리인하 조치등과 관련, 밀가루 공장도값을 평균5·2%내리고 쌀값안정을 위해 현재서울지역에 한정된 정부特米방출지역을 釜山까지 확대키로했다. 또한 방출값도 80㎏가마당 3천원(소비자값은 2천원) 내려 9일0시부터 실시키로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밀가루 소비의 대종을 이루는 보통밀가루 공장도 값은 22㎏들이 부대당1등품이 현행5천1백70원에서 2백80원(5·4%) 내린 4천8백90원, 2등품은 4천5백80원에서 1백80원(3·9%) 내린 4천4백원, 3등품은 4천1백30원에서 1백50원(3·6%) 내린 3천9백80원으로, 소비자값은 1등품이 5천6백70원에서 2백80원(4·9%) 내린 5천3백90원, 2등품은 5천80원에서 1백80원(3·5%) 내린 4천9백원, 3등품은 4천6백30원에서 1백50원(3·2%) 내린 4천4백80원으로 각각 내렸다.

이번 밀가루 값인하는 지난77년 부가가치세제 실시에 따른 영업세철폐로 2·27%인하 한데이어 두번째이다. 밀가루값은 81년 세계곡물작황이 전반적으로 호전되고 올해 밀작황도 풍작이 예상됨에따라 톤당 국제가격(C&F기준)이 81년 4·4분기의 평균 1백93·17달러에서 올들어 1·4분기중 1백80·71달러, 2·4분기중 평균 1백75·88달러, 5월중에는 1백74·83달러로 1년여동안에 9·9%(19·22달러)나 하락했으나 그동안의 환율인상, 인건비 상승등으로 평균5·2%를 인하한것이다.

한편 최근의 가뭄등에 영향을 받아 일반미값이 반등세를 보이고있어 현재 서울지역에한해 방출하고있는 정부특미를 釜山까지 확대, 방출하고 특미의 방출값을 80㎏가마당 3천원내려 현행6만6천원에서 6만3천원으로 인하했다.

이에따라 특미 소비자값은 현행 6만8천7백원에서 6만6천7백원으로 2천원이 인하되고 상품미는 소비자값은 그대로두고 방출가격만 가마당 현행 5만3천2백80원에서 1천원을내린 5만2천2백80원이 됐다.

정부는 또 특미및 상품미에 대한 방출촉진책으로 소매이윤폭을 가마당 1천원씩 올린 3천7백원으로 조정, 일반미의 소매이윤폭인 5천원에 접근시켰다.

社員채용·融資·大入·電話청약등 民願書類 대폭 간소화

兵籍·호적증명서등 안내게

정부는 일반기업의 社員채용 구비서류와 대학입학구비서류를 감축하는등 각종證明에 필요한 民願서류를 대폭 줄이도록 권장하기로 했다.

정부는 民願발급總量의74·4%를 차지하는 증명 민원중 특히 주민등록초본이나 戶籍등초본의 감축없이는 민원간소화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에서 社員채용, 대학입학 구비서류뿐아니라 은행신용貸出과 전화청약구비서류도 감축키로했다.

증명민원 감축내용을 보면 사원채용구비서류중▲兵籍확인용으로 받던 주민등록초본이나 병적증명을 병역수첩확인으로 代替하고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함께 내야하는 경우 성적증명서만내도록 하고 ▲검정고시합격증서의 경우 寫本제출로 대체키로했다.

대학입학구비서류의 경우 ▲호적초본과 주민등록 등초본은 주민등록증 확인으로대체하고 ▲검정고시합격증명서는 原本제시만으로 가능케했으며 2백만원이하의 은행신용대출구비서류의 경우 제출케돼있는 주민등록 등본을 주민등록증 확인으로 가능토록했다.

한편 전화청약이나 전화설치장소변경때 제출케돼있는 주민등록 등본도 주민등록증 확인만으로 가능하도록 권장키로 했다.

경제단체등과 협의를 거친 이번 증명민원감축 조치는 지난해 10월의 國營기업을 포함한 행정기관 채용구비서류 간소화조치와 지난1월에 실시한 일반기업채용시험 응시서류간소화조치에 이은 세번째 조치이다.

총무처 합동민원실은 전국 각기관의 민원발급 年間總量은 1억5천9백83만6천여건이고 이중 주민등록·印鑑등 증명민원이 74·4%인 1억18만9천여건에 이른다고 밝히고 이번 [illegible] 명이 혜택을 입게되고 5억8천여만원(민원인 經費 2억5천9백만원 절감 추정)의 경비절감효과를 가져올수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7·3措置등 논의

民正 黨政정책회의

정부와 民正黨은 9일저녁 三淸洞총리공관에서 金相浹총리서리 취임후 첫黨政정책조정회의를 갖고 정치·경제·사회등 國政전반에걸쳐 의견을 교환한다.

이날 모임에서는 특히 정부가 발표한「6·28」및「7·3」조치등 經濟活性化대책과 南北총리회담의 후속조치등이 논의될것으로 보인다.

◇농민들에 웃음이… 오랜만에 쏟아진 소나기였지만 해갈이 될만큼 충분히 내린곳에는 뒤늦게나마 모내기에 바빠졌다.

파라과이 暴雨

1世紀來 最惡 이재민 數萬명

【아순시온(파라과이)8日AP聯合】 8일 파라과이의수도 아순시온과 그주변광범한지역에 1세기만에 처음보는 사상최악의 폭우가쏟아져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아순시온에서남쪽으로1백25㎞떨어진 아르헨티나와의 접경도시 알베르디는 80%가 물속에 잠기는등 사태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있다.

홍수 피해는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 까지 확산, 아르헨티나 포모사 지역에서도 1만9천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LO레바논撤收

최종時限11일까지 와인버거 美國防

【워싱턴7日UPI=聯合】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의 베이루트 철수에 관한 협상의 성패를 결정하는 최종시한을 오는11일로 설정해놓고 있다고 와인버거 미국방장관이 7일밝혔다.

와인버거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이날 기자들및 언론관계인사들과의 조찬회에서 나온것인데 그는 이자리에서 이스라엘정부는 지난4일 각의에서 이같은 시한을 결정함으로써 레바논사태를 중재하고있는 필립·하비브 미中東특사에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레바논및 시리아등 관계당사자들에게 다같이 수락될수 있는 협정을 마련할수 있는 기간으로 겨우 1주일의 여유를 준셈이다.

12일 國會 내무위

地下鐵사고만 따져

국회내무위는 8일상오 3黨간사회의를 열고 오는12일 소집되는 내무위 전체회의를 상오10시에 開議하고 議題를 서울시 지하철사고만으로 국한시키기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12일의 내무위에는 金聖培서울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관계자와 서울지하철公社 관계자만 출석케된다.

한편 국방위도 이날 상오 金永先위원장과 3黨간사들이 간담회를 갖고 국방부측으로부터 北傀의 東海안어선 납치기도사건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金相浹 總理서리 퇴임長官勞苦위로

金相浹국무총리서리는 8일하오 서울新羅호텔에서 劉彰順前국무총리를 비롯, 柳鍾培前재무등 퇴임장관들을 위해 만찬을 함께하며 재임기간중의 勞苦를 위로했다.

地平線

『경제는 유통이다』 자선사업이 아니다 라면「손큰 여자」가 과연 법정에서 말했다. 名言이다. 경제는「수요」와「공급」에 따라 움직인다. 모든 문화와 서비스는「공급」에서「수요」쪽으로, 돈은 그 반대쪽으로 흐른다. 이 흐름의 동기는 이익이다.

▼좀 야박한 얘기같지만, 우리 교육풍토에도 이 圖式과 같은 일면이 없지않다. 學歷社會의 이익을 좇는 온국민의 교육열은 막대한「교육수요」를 만들어낸다. 그렇지 않아도 학교의「교육공급」이 모자란터에, 入試競爭의 배경이 있음으로 해서,「교육수요」와「교육공급」사이의 불균형은 더욱 심해진다. 그 결과로 생긴것이 課外 — 정상적인 공급루트를 벗어난「교육의 暗去來」다.

▼「수요」가「공급」을 초과할때 가장 손쉬운대책은 두가지다. 하나는 配給, 다른 하나는 暗去來의 단속. 고교평준화는 말하자면 교육의 配給제도나 같다. 配給의 공정을 위해서는 고교의 入試도마저 금지된다. 暗去來의 단속은 7·30교육개혁이래 세차게 거듭되고 있다. 지난 6월말까지 근 2년사이의 단속 실적은 과외교사51명, 학부모 1백79명, 학생1백94명에 이른다.

▼그러나 아직껏 과외가 뿌리뽑히지 않고 있음은 근래의 신문을 보아서 알수가 있다. 어떤 집에서는 가정부에게 과외지도를 시켰다고 한다. 과외교실로 둔갑한 독서실도 있었다. 7·30개혁에 박수를 보냈던 많은 학부모들은 좀 불안해 진다. 남들은 지금도 과외를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런 불안이 쌓여서 어떤「모험」으로 발전한다면 야단이다. 과외단속은 그런 불안을 씻을만큼 강력해야 한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의「수요」와「공급」이다. 入試제도로「假수요」까지 겹친 마당에「공급」을 늘리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 것이다. 配給과 단속만의 대책은 공정할지는 모르지만, 유통경제를 교란하고 소비생활의 質을 떨어뜨린다. 사리는 교육에서도 마찬가지. 가장 손쉬운 대책에만 기대온 교육정책은 지금 교육의 흐름을 교란하고, 교육의 質을 혁신적인 공정과 맞바꾸는 꼴이 되고 있다.

▼과외근절은 결코 단속이나 경찰의 힘만으로는 되지않는다. 아쉽기는 교육의「수요」를 줄이고「공급」을 늘리는 문교행정,『교육은 곧 유통』이란 깨달음이다.

무인신문판매대
블루어에 설치
○음식점 한국관앞
○40¢넣으면 신문통 문이 열립니다.
○식품점서와 같이 당일발행된 신문을 사실수 있음.
토론토 한국일보

한국일보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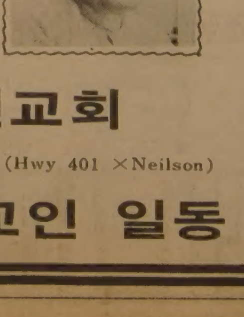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 [illegible]
215 Yonge St.
368 7961(B)
690 5217(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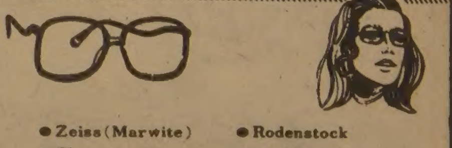
성공회 예배안내

금번 새로 석신부님을 모시고 다음과 같이 예배를 갖아오니 교민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일 시 : 매주일 오후1시
장 소 : CHURCH OF THE NATIVITY
본당신부 : 석 균 우(마가)
신자회장 : 윤 종 석(요한)
사제회장 : 김 성 진(안토니)


석 균 우 신부

새마음
성공회토론토한인교회
1301 Neilson Rd. (스카보로 지역) (Hwy 401 ×Neilson)
성공회 교인 일동

블루어안경

● Zeiss(Marwite) ● Rodenstock
● Christian Dior ● Nina Ricci
● Menrad ● 안경제조, 수리, 복사처방
● 안과의사알선(No Appointment)
● 정부 보조 안경지정영업소
● Blue Cross, Metropolitan Life Vision Care지정 안경점
● Stock렌즈는 당일 서비스 합니다.
※주2회 안과의사가 직접 내방하여 검진하오니 이 시간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토요일 : 오후1시부터~4시30분까지
영업시간 : 월~목 · 9 : 30AM~7AM
금 · 9 : 30AM~8PM
토 · 9 : 30AM~6PM
635 BLOOR ST. W
531—2236 (B) 886—0722(R)

나토, 4단계減軍案 제시

바르샤바와 東西협상서

"兩側 중부유럽주둔軍 地上軍 포함 90萬명씩"

【브뤼셀7日路=聯合】西方은 8일 빈에서 재개될 東西상호감군협상에서 中部 유럽주둔 나토軍과 바르샤바조약軍의 상당한 상호감축을 실현시킬 4단계 감군방안을 제시할것이라고 나토 소식통들이 7일 전했다.

이 소식통들은 16개 나토회원국중 12개국과 7개 바르샤바조약기구 전회원국등 모두 19개국이 참석할 이번감군협상 본회의에 제시될 이 案이 東西진영의 中部유럽주둔군을 궁극적으로 각각 지상군70만을 포함, 모두 90만씩으로 줄이는것을 내용으로하고있다고 전하고 레이건美대통령의 지난6월 西獨방문중에 이제안이 마련되었다고 덧붙였다.

바르샤바조약기구는 中部유럽에서의 東西군사균형이 대략 유지되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나토는 바르샤바조약기구가 이곳에 1백18만나을 주둔시키고 있는 반면 나토는 이보다 15만가량이 적은 99만3천명만을 배치하고있다면서 바르샤바조약기구가 나토에 비해 보다 많은병력을 감축해야한다고 촉구해왔다.

◇大統領과 難民들　反베트남 캄보디아 聯政의 대통령으로 취임한 시아누크公이 7일 타이국경지대에 위치한 캄보디아 난민촌을 방문, 열렬한 환영을 받고있다. 그는 캄보디아 해방을 위한 反베트남전쟁에 앞장서겠다고 다짐했다.【카오이당 (타이) 7日AP路=聯合】

日방위비 늘려야 이또 防衛廳장관

【東京7日共同=聯合】이또·소오이찌로(伊藤宗一郎) 일본방위청장관은 7일 일본의 83회계연도 방위비가 9·7%(2천5백여엔, 美貨 10억달러)정도 증액되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집권 自民黨의 한 모임에서 연설한 이또장관은 大藏省이 83회계연도 방위비를 4·7%증액해 주기로 방위청에 이미 약속했다고 밝히고 이같은 小幅 증액으로는 방위청의 83회계연도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할수가 없다고 말했다.

스즈끼·젠꼬(鈴木善幸)일본수상은 오는83회계연도의 일본방위예산을 國民總生産(GNP)의 1%내로 계속 묶어두기를 바라고있다고 말했다.

스즈끼수상은 이날 기자들에게 그러나 만약 日本의 年間실질경제성장률이 현재의 4%에서 성장목표인 5·2%로 늘어나지 못할경우 오는 85회계연도에는 방위예산이 GNP의 1%이상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PLO、海上철수반대

"平和軍 감시하에 段階的" 주장

【베이루트7日路AP=聯合】레바논위기종식을 위한 미국과 레바논중재당자들은 7일 西베이루트에서 이스라엘軍에 포위된 팔레스타인 게릴라의 철수방법과 시기및 장소에 관한 포괄적인 타결책을 마무리 지으려 노력했으나 팔레스타인측은 美6함대 지원하의 海上철수에 반대했다고 사에브·살람 前레바논수상이 밝혔다.

살람 前수상은 PLO가 ... 지원하의 海上철수를 원하고 있다고 사에브·살람 前레바논수상이 밝혔다. 중동특사와 필립·하비브美특사와 야세르·아라파트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議長사이에서 중재역할을 해온 살람 前首相은 PLO가 海上철수에 반대하는 대신 陸路를 통해 베카계곡에 단계적인 철수를 고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PLO는 美6함대 지원및 호위하에 시리아로 철수하는 제안을 거절하면서 프랑스 공정대를 주축으로한 다국적평화유지군의 감시하에 단계적인 철수를 고집하고있다고 밝혔다.

戰略核 감축문제 合意못봐

美·蘇13일회의續開

유럽배치核무기제한협상을 벌이고있는 美·蘇양국대표들은 6일 제37차회의를 속개하고 중거리전략핵무기감축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소련외상과 2시간 회담을갖고 양국간의 주요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모스크바=DNA】

美혼혈아 出國허용 베트남、美서願하면

【모스크바=DNA】

이멜다·蘇외상會談

스페인執權黨 분열 首相、黨의장직辭退

레오폴도·칼보·소텔로 스페인수상은 6일 그가 이끌어온 집권民主中道聯合(UCD)의 의장직을 사임했으며 UCD가 분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마드리드의 정계소식통들이 전했다. UCD는 지난5월 안달루시아 지방선거에서 패배한뒤 黨內분규를 겪어왔다.【마드리드=AP】

美日安保 실무회의 8월末 호놀룰루서

美·日안보문제에 관한 제14차 실무자회의가 오는8월30일부터 9월1일까지 3일간 호놀룰루에서 개최된다고 日외무성이 7일 발표했다.【東京=聯合】

北京서 平和시위 외국인교사·학생

北京에서 근무하는 24명의 외국인교사와 학생들이 7일 北京에서 평화행진을 벌이며 美·蘇양국대사관에 核軍縮을 촉구하는 호소문을전달했다. 北京에서 이같은 평화시위가 벌어지기는 이번이 처음이다.【北京=AP】

美조종사 30~40명 베트남、포로로抑留

共産베트남에는 아직까지 30~40명의 美軍조종사들이 포로로 억류돼있으며 이들의 석방은 對美수교를 위한 교환조건으로 이용될지도 모른다고 퍼레이드誌가 최신호에서 보도했다.【뉴욕=UPI】

東南亞국제회의 開催 제의

베트남、月內「캄」서部分철군

【胡志明市(베트남) 7日AP聯合】베트남은 7일 캄보디아주둔 베트남군 가운데『현저한 규모』를 이달중에 철수시킬 것이라고 발표하고 그들의 이러한『善意』에 상응하는 조치가 취해질 경우, 추가로 철군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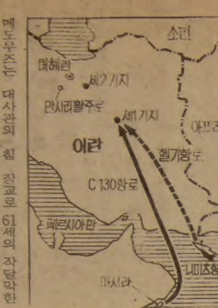
이란을 안방처럼누빈 7人의 美特攻隊員들

뉴스위크誌、美 人質구출작전 秘話공개

事前침투… 대담·치밀한 活動

人質所在 H아워 4시간전에 파악

作戰실패로 아슬아슬한脫出



근착 뉴스위크誌는 미국이 지난 80년4월 인질구출작전을 감행하기앞서 테헤란에 미리 투입한 특공대원들의 활약상을 상세히 취재보도했다. 이작전은 비록 실패하긴 했으나 적지에들어간 특공대원7명의 치밀하고 대담한공작은 드릴에넘치고 있다. 찰즈·베크위드대령과 리처드·메도우즈 두사람은 무장교도가 미대사관을 점령하던 첫날부터 구출작전에개입했다. 베크위드는「델타」로 불리는 反테러특수부대 대장이다.

메도우즈는 대사관의 침투지점을 찾아내고 부비트랩을찾아내면서 「라이스보울」(쌀밥그릇)이라는 암호명을 가진 인질구출작전이 절정에 달할때 함께 행동케할 목적으로 현지에 박아둔 첩보원 이었다. 메도우즈는 아일랜드인 자동차회사직원을 가장, 리처드·케이드라는 가명으로 행세했다.

메도우즈에 앞서 인질사건이 난해 12월 하순, CIA의 첫번째 요원이 테헤란에 침투했다. 봄이라는 퇴역정보장교로 61세의 작달막한 사람이다. 그는 남부 유럽에 살고 있었으며 여러나라말을 할 수있었다. 봄은 기적같이 일을 해냈다. 몇주일 이란에 머무른다음 아테네, 로마로 빠져 나와 상황을 브리핑하고 새지시를 받아 다시 잠입했다. 그는 테헤란의 메라바드 공항을 거침없이 통과했다.

얼마안있어 CIA를 위해 일한 경험이있고 부유한 이란망명인한사람이 봄과 합류했다. 봄이 정보를 모으고 이 란현지 첩보망을 구축하는동안 이 이란인 첩자는 베크위드 팀의 구출작전을 위한 준비를 진행했다. 5대의 마국제 포드자동차, 2대의 마즈다 밴트를 구입, 「사막 제2기지」에서 「델타」를 테헤란에 수송할 준비를 갖추었다. 사막제2기지는 테헤란에서 남쪽 80km 지점.

한편 특공작전 30년경력의 메도우즈는 단 하나의 실수도 허용치않도록 빈틈없는 작전을 짰다. 그는 사막제2기지의 착륙지점및 헬기착륙예정지인 감사르북쪽 산악지대를 정찰했다. 그는 사막제2기지에서 대사관까지의 시간을 재며 차를 몰았다. 테헤란시가지를 걸으면서 위성정찰의 실수가능성도 조사했다. 또 트럭이 숨겨있는 창고를 답사했으며 베크위드의 부하들이 낮동안 숨어지내야할 감사르부군의 소금평도 정찰했다.

이 임무를 위해 나선 사람이 메도우즈. 그는 2명의 다른 이란혈통의 미국군사요원과 함께 테헤란에갔다. 이들 두사람은 메도우즈의 운전사로 행동했다.

구출작전3일전 그는 워싱턴에 『모든것이 순조롭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거사36시간전 이란의 인부들이 트럭을 숨겨둔 창고앞에 참호를 파 차를 거리에 몰고 나올수없게 되었다. 메도우즈는 간신히 인부들을 은폐시킨다음 워싱턴에서 날아온 8명의 이란망명객들을 앞세우고 트럭이 숨겨진 테헤란시내의 창고로 향하게 됐것이었다. 다음날저녁 그는 이란인망명객들과 함께 사막제2기지로 트럭을몰고가 특공대를 싣고 미대사관으로 올 예정이었다.

구출작전에 직접투입될 특공대는 모두97명. 정작 대부분의 인질들이 대사관 사무국건물에 집단수용돼있다는 사실을 알아낸것은 베크위드특공대가 C130수송기로 이집트를 출발하기 4시간 전이었다. 이는 미국대사관의 요리사로 일하다 쫓겨난 파키스탄 사람을 CIA요원이 우연히만나 알아낸 것이었다.

◇메도우즈　◇베크위드

蘇는 왜 PLO冷待하나

中東서 찾는건 石油·戰略的 가치뿐

PLO정책、아랍圈 태도따라 變化

美 失手기다리며 點數따려는 속셈

PLO의장 아라파트가 모스크바공항에 내리자마자 크렘린으로 직행, 브레즈네프 공산당서기장과 포옹하는 모습은 꽤 자주 볼수 있었던 장면이었다. 그러나 요즘서베이루트에 갇혀 팔레스타인독립운동의 死活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아라파트는 크렘린으로부터 철저하게 냉대를 받고있다. 그가 마지막 救援을 요청하기 위해 소련으로 보낸 카두머 정치국장(외상)에게 그로미코 외상은 5일 『소련은 군사적으로 레바논전쟁에 직접 개입할 의사가 없다』고 딱잘라 말했다.

팔레스타인쪽에서야 소련이 지중해안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이용시키거나 시리아에 군대를 파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견제하리라고 기대했을지도 모른다.

◇스페인「달리기 축제」 스페인의 팜플로나시에서 7일 벌어진 달리기축제에서 4마리의 황소가 앞서달리는 젊은이들을 뒤쫓고있다.【팜플로나7日AP路=聯合】

男子도 性的시달림 ★英職場서 28%가호소

영국의 한 관공서에 다니는 남녀직원을 대상으로 앙케트조사를 실시, 응답자의 43%가 근무도중 이성들로부터『어깨만지기·몸부딪치기·몸붙잡기』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불평을 늘어놓았다고 밝혔다.

또한 응답자의 50%는 상대방이 자신을『응시하거나 근접』으로 고통을 겪고 있으며 48%는『성적발언이나 추파를 던진다』고 대답했으며 조사에 응한 1백60명중 남자가 28%나 됐다고.【런던=聯】

勞動者의욕 喪失로 北傀、生産부진우려

【서울=聯】北傀는 6일현재 그들 경제가 계획대로 수행되지 않고있으며 이같은 결과는 전체주민들의 사상적 해이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지적함으로써 주민들의 노동의욕 상실과 생산활동不振의 악순환이 되풀이되고있는 그들내부사정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北傀는 이날 黨기관지「로동신문」의 장문의 사설을 통해 그들 경제활동이 계획대로 日別·旬別·月別, 그리고 指標別로 어김없이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생산不振을 실토하는 가운데 이같은 현상은 전체주민들이 黨의 의도를 敏感하게 받아들이지않는 풍토에 비롯되고있다고 주장했다.

入神의 天下통일

바둑은 비생산적이다. 『바둑은 할일 없는 노인이 소일거리로 삼기에 알맞는 오락』이라고 조선 숙종때 문관을 지낸 朴世堂은 언짢게 표현했다.

이말을 오늘의 바둑팬들에게 들려주면 거꾸로 언짢아 할것이 분명할것 같다. 바둑은 정신과 두뇌게임으로 인생의 축도라고까지 예찬을 받고있다. 인생이 드라마라면 바둑도 멋진 드라마하겠다. 그러나 목숨은 단 한번에 끝나지만 바둑은 몇판이고 다시 둘수 있다고 일본의 사까다 9단은 고마와 한다.

우리나라 유일의「入神」이며「천하통일」의 棋界를 휘어잡았던 대표적인 표현에 걸맞게 曹薰鉉9단의 바둑 드라머는 패기가 가득하다. 9단승단, 즉 入神 2개월만에 그는 한국바둑의 열굴임을 재확인해 주었다. 국내 타이틀 9개를 독점해 버렸다. 2년전천하를 제패한 쾌거가 거듭 살아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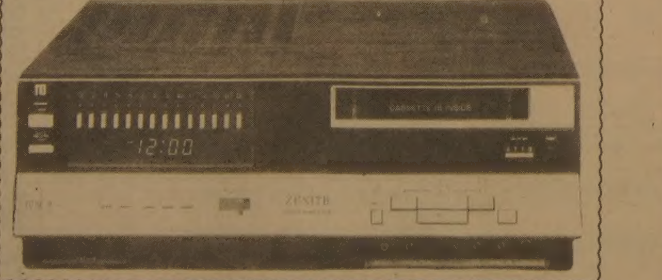
그의 바둑인생은 神童으로 시작되었다. 네살에 훈수를 하고 10살에 초단이 되었다. 63년 일본에 바둑유학, 세고에·겐사꾸 門下에 들어갔다. 여기서 아름다운 師弟愛가 맺어졌다. 병역의무를 치르기 위해 귀국하자 세고에 스승은 몹시 서운해 했다고 한다. 노경의 스승은 외로움에 시달리다 오랜 친구인 노벨상작가 가와바다·야스나리의 자살에 충격을 받고 자결했다. 그가 남긴 유서에「제발 曹薰鉉을 데려다 대성 시켜달라」고 당부했다고 전해진다.

「大成의 그릇」은 초단에서 20년의 刻苦끝에 탄생했다. 천하무적의 아성은 당분간 뒤흔들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번 천하재통일의 예상은 지난3일 이미 뚜렷이 밝아왔다. 포항에서 열린한국일보주최 제13기 名人戰에서 타이틀을 굳게지킴으로써 청신호가 밝혀진 것이다. 그의 맞수徐奉洙7단을 3대1로 이겨냈다.

이 여세를 몰아 왕위전에서도 4승3패의 기록으로 타이틀을 차지했다. 이 기꺼운 소식이 그저 전문기사의 영광으로만 생각되지 않는다. 한 우물을 깊이 차근차근 파내려 가면「道」가 트일 것이다. 바둑의 세계뿐 아니라 사회에 골고루 이런 入神의 노력이 있어 주기를 기대해 본다. 손쉽게 한탕해서 세상을 놀라게 하는 虛慾은 없어야 한다. 착실히 벽돌을 쌓아가는 의지가 있으면「入神의 인물」은 각계에서 계속 탄생할 것이다. 천하통일의 뜻을 새겨본다.

특별할인대매출

— Model No. VR 8900 —



ZENITH

~~$1,199.95~~

전 세일가격 ~~$1,099.00~~

특별세일　$899.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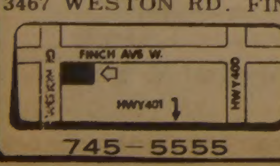
● 24 HOUR AUTO RECORDER
● PICTURE SPEED SEARCH
● TOUCH COMMAND CHANNEL SELECTION

사 과 문

교민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간 저희 상점을 애호해 주신 여러 교민들께 감사의 말씀과 함께 사과의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ZENITH VIDEO가 이번에 본사로부터 값이 많이 내렸기 때문에 저희들의 가격도 함께 낮추어 판매하게 되었읍니다. 이점 널리 양찰하시고 먼저 구입하신 분들께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앞으로 교민을 위한 신속 정확한 서비스를 약속드리면서 계속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김 정 운

한국 Video Film Rent도 취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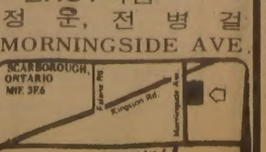
WEST지점
전 광 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 정 운, 전 병 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오히려 가물어 신바람
靑果物 날개돋쳤다
日照量 충분… 豐作에 단맛
값도 싸 올여름 口味의 主役
청량음료·빙과류누르고 市場마다 지천

수박, 참외, 토마토등 각종 청과물이 풍작인데다 오랜가뭄으로 충분히 햇빛을 받는바람에 맛까지좋아 올여름「입맛」의 주역으로 — 부상했다. 또 값도 예년에비해 30%정도가싸 2천원짜리 수박한덩이면 한가족이 시원한 여름밤을 즐길수 있다.

이같은 청과물의 등장으로 사이다, 콜라등 청량음료는 판매량이 줄었는데 가정주부들이 색소등이 첨가된 화학음료보다는 값싼 천연식품을 골라찾는 기호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기도하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요즘 서울시내 청과류의 주공급처인 龍山청과물시장에는 하루 수박이 2백트럭, 참외가 2~3천트럭씩 반입되고 있는데 상오10시이전에 모두 매진된다.

청과물이 풍작을 이룬것은 지난해 흉작이어서 올해는 많은 농가가 수박 참외등을 심어 30%정도가 증산됐다.

특히 올해에는 날씨가 가물어 수박과 참외등이 잘익는바람에 단맛이 더하고 값도 싸졌다.

청과물값은 지난해에 비해 3분의1정도가 싼데 1천원만주면 참외는 5~8개, 수박은 3kg가량되는 것을 살수있다.

한편 이와는 반대로 75년만에 맞는 가뭄까지 겹쳐「물장사」로 불리는 음료수메이커들이 큰 기대를 걸고 있었으나 판매량이 저조했다.

L메이커의 경우 아이스크림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10%이상이나 줄었고 전반적인 음료제품도 10~20%가량 줄었다.

H음료의 경우도 계획량에는 훨씬 못미치는 정도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음료수업계는 금년에는 일조시간이길어 과일이 풍작을 이룬데다 불황까지겹쳐 고전하고있다고 밝혔다.

빙과류와 유산균을 주로생산하는 L회사는 성수기인 7월에 접어들어도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 고심하고있는데 아이스크림의 절대판매량이 10~20%나 벌어졌고 음료수 전반에걸쳐서도 비슷한 수준에서 맴돈다는것.

이 회사 기획과장 任祥圭씨는『성수기에 접어들어도 판매량이 늘어날 조짐을 보이지 않는다』면서『불황에다 지난6월부터 풍작으로쏟아져 나오는 과일에 수요를 뺏긴탓』이라고 풀이했다.

주택가 구멍가게에도 이같은 현상은 마찬가지인데 永登浦區 永登浦洞7街 홍선상회의 경우『지난해 성수기에는 하루1만5천원어치 이상을 팔았던 아이스크림이 금년들어서는 1만원정도밖에 안팔린다』면서『음료수로 지난해 하루 5상자 팔리던 것이 금년에는 2상자정도만 팔린다』고 했다.

그러나 주택가 골목길마다 수북이 쌓아논 수박, 참외등은 날개돋친듯 잘팔리고 있다.

◇극심한 가뭄에도 극심한 가뭄에 오히려 덕을봐 날개돋친듯 팔리고있는 청과물. 아 값싸고 맛있는 천연식품이 청량음료와 빙과류를 밀어내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불량學生 무더기摘發
大邱서 66명拘束

【大邱】大邱지검형사2부는 8일 고교생61명과 대학생17명을 비롯 불량청소년1백48명을 입건, 이중 죄질이 나쁜 66명을 구속했다.

검찰에 적발된 학원주변폭력사범중 학생이 전체의 62%인 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나머지 56명은 재수생, 또는 불량청소년들이었으며, 학생 92명 가운데는 고등학생이 66%인 61명으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대학생이 18%인 17명 중학생이 16%인 14명이었다.

연령별로는 18세가 30명, 17세가 22명, 15세가 20명, 16세가 21명, 19세 18명, 14세가 7명이며 유형별로는 단순폭력 또는 공갈범이 70명(49%)으로 가장 많았고 흉기를 소지한 집단폭력사범이 44명(30%) 성범죄가 12명(8%) 강도사범이 4명 등이었다.【聯合】

北傀 로동신문主張
"高句麗때 나무다리기초 大同江하류서 發見했다"

【서울聯合】北傀는 최근 平壤市大東江美林閘門(80년7월완공)하류 2km지점에서 5~6세기께에 고구려인들에 의해 건설된 대형나무다리기초골조를 발견했다고「로동신문」이 지난달 6일자에 보도했다.

北傀「로동신문」은 또 한 나무다리골조와 함께 와조각, 질그릇조각등 高句麗시대의 유물들이 함께 발굴되었다고 전하면서 이같은 여러가지 사실들로 미루어 나무다리는 길이가 3백75m, 폭이 9m정도였던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처럼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큰 나무다리유적은 국내뿐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아직 알려진일이 없다고 주장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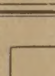
젊은「보배」
技能人최고영예 技能長 孫泰和군
機械가공「博士」… 최연소로 頂上

비좁은 국토에 빈약한 자원뿐인 우리나라가 내세울건 人力밖에 없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기술인력. 그래서 세계수준이라는 젊은 기능공들에게서 우리는 밝은 장래를 기대하는것이다.

孫泰和씨(25·사진·馬山한일단조공업유한회사)는 우리가 보배처럼 아끼고 세계에 자랑할 기능의 한사람.

그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탄생한 기능인의 최고영예요 최고자격인 기능장을 획득, 기계가공분야에선 이땅의 제1인자가 됐다.

그는 한국직업훈련공단이 지난달 12일 昌原기능대학 1회졸업생2백10명중 기능장으로 선발한 45명중 최연소자이기도 했다.



그가 기능인으로서의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그 어느정상인과 마찬가지로 그야말로 晝耕夜讀의 피나는 노력이 필요하였다.

어려서부터 기계를 뜯어보는것이 취미였던 그는 釜山工高에 입학, 이때부터 하루도 쉬지않고 기계를 깎고 다듬는일을 하면서 기량을 닦았다.『세계최고』가 되겠다는 결심으로 그는 하루도 게으르지 않았고 이같은 집념은 끝내 열매를 맺기시작했다. 고교2학년때인 74년 4월 정밀가공기능사자격을, 같은해 10월엔 1급기능사자격을 따낸것.

그러나 그런정도의 자격증만으로는 기업체에서 환영받을 수준은 되지 못했다.

그는 다시 한국정밀기기센터내전문학교2년과정을 거쳐 정밀측정사 2급자격을 취득했다. 그리고 79년 昌原기능대학 기계공학과에 입학, 고도의 기술을 폭넓게 배워 기능장으로서의 자질을 키웠다.

최연소자로 기능장의 영예를 차지한 그는 직장에서 지친몸으로 밤에는 대학에서 공부해야하는 무척 고된 나날이었지만 자신의 꿈이 실현되어 기쁘다고 말한다.

기능장은 西獨을 중심으로 유럽국가에서 발전시켜온 기능사회 최고자격을 지칭한 제도. 각 전공분야의 전문적기능과 지도자적 지식을 겸비해야한다.

우리나라에선 지난80년 이제도를 도입, 1급기능사로써 실무경력 7년에 昌原기능대학졸업자에게만 기술자격을 준다.

유럽에서는 기능장을 박사와같은 대우를 해준다고 말하는 孫씨는 모처럼 탄생한 젊은 기능장들을 사회가 보배처럼 아끼고 키워주어야할 것이라고 호소했다.【盧基昌기자】

한국인 6%가 肝炎(B型)감염
미국의 61倍… 豫防계몽펴기로
대한醫學協, 86년까지 O%운동展開

대한의학협회(회장 文太俊)는 우리나라에서 풍토병화한 간염(肝炎)을 몰아내기위해 오늘부터 86년까지 5개년계획으로『간염0(零)%운동』을 적극 펴나가기로 했다.

의협의 이같은 캠페인은 전국민의 11%정도가 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는데다 이중 6·14%정도가 만성간염과 간경변, 간암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B형간염바이러스에 감염되어있다는 최근의 역학조사결과에 따른것이다.

최근 서울대 의대내과학(金丁龍) 병리학(李正彬) 예방의학(權彝赫) 교실과 서울적십자혈액원검사과 공동연구팀이 75년3월부터 81년6월까지 만6년4개월동안 전국27만8천6백33명(남자20만7백29명)의 건강한 헌혈자를 대상으로 실시한『간염B 표면 항원 발현율 역학분석』결과 우리나라사람 1천명가운데 61·4명꼴이 B형간염바이러스의 양성반응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의 0·1%에 비해 61·4배나 높은 감염률을 나타내는 대단히 높은수치이다.

의협은 이에따라 협회안에 연세대의대 柳在德 교수를위원장으로하는 10명의 간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의료인의 반상회를 통한 적극적인 간염예방계몽활동과 최근 미국과 프랑스에서 실용화한간염예방백신의 접종사업을 벌이는등 올해부터간염 0%운동을 펼치기위한세부지침을 마련했다.

海外근로자賃金 특별計定制로 支給
滯賃막게 別途송금

정부는 해외진출업체의 체불임금을 근본적으로 봉쇄하기위해 해외송금중 근로자의 임금부문에 대한 특별계정을 마련 강력히 실시하기로 했다.

노동부가 8일 재무부 건설부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98개해외건설업체에 시달한「임금특별계정분리운영지침」에 따르면 각 건설업체는 해외공사의 先受金또는 공사代錢을 받을때는 거주자계정으로 일괄송금하지 말고 일정액을 근로자의 임금을 위한 특별계정으로 분리송금 근로자임금을 제때에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日서 한국女性상대 신원保證 유령회사
호스티스 5백명

【東京7日AP=聯合】일본경찰은 최근 술집의 호스티스로 취업하기위해 일본에 입국한 약5백명의 한국여성에『신원보증』을 해줄목적으로 가짜회사들을 설립하려한 혐의로 일본인 5명을 체포했다.

일본경찰은 유흥업소에 합법적으로 취업한 외국 여성들중 상당수가 본래의 계약내용인 노래와 춤대신에 스트립댄서, 매춘또는 마사지걸등으로 일하고 있을것으로보고 있으나 그 정확한 내용은 밝혀내지 못하고있다.

일본법무성 통계에의하면 작년 1만6천4백47명의 아시아인이 3개월 관광비자로 일본을 방문했으며 이들중 대부분이 여성이다.

또한 이들 여성관광객중 3백19명이 같은해 윤락, 풍기문란, 매춘및 출입국관리법 위반혐의등으로 조사를 받았다.

일본의 유흥업소들은 인근아시아지역출신의 접대부들에 月7~8백달러의 보수를 제공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비타민·한약
미드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皮革회사 廢水시설 改修
工場長등 2명窒息死

【釜山】8일하오 2시30분께 부산北區三樂洞392호 창피혁공업사(대표 강연복)폐수처리장에서 시설개수 작업을하던 공장장 배용현씨(52)등 직원5명이 유독가스에 질식, 인근 백병원으로 옮겼으나 배씨와 종업원 최종배씨(45)등 2명은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공장안에 설치된 폐수처리장시설을 고치기위해 가로 세로 3m 깊이 4m의 하수구로 내려갔는데 30분이넘도록 아무연락이없어 밖에서 기다리던 같은회사직원 김종만씨(37)가 뒤따라 하수구로 내려가보니 모두 가스에 중독돼 질식해 있었다는것.

호창피혁은 지난 6월말부산시로부터 폐수처리장의 시설개수 명령을 받고 이날배씨등이 개수작업을 위해 폐수처리장과맞붙은하수구에들어갔다가 변을당했다.【聯合】

讀書室서 自習가장 집단課外 3명立件

서울北部경찰서는 7일 독서실에서 집단 과외지도를해온 金公振(32·서울城北區城北洞183의27)、容振씨(28·")형제와 朴昌根씨(49·서울城北區三仙洞5街44의20)등 3명을 사설강습소법위반혐의로 입건조사중이다.

경찰에 의하면 金씨형제는 지난5월20일 서울城北區東小門洞1街136에 열람석95석짜리 오성독서실을 개업, 전직교사인 朴씨를 고용해 중·고생 90여명에게 매월1인당 2~5만원씩을 받고 매일하오7시부터11시30분까지 과외교습을시켜왔다는것.

人夫 둘死傷
後進하던트럭에 치여

【慶山】8일상오 10시께 慶山郡慶山邑中方洞 서울약국 앞길에서 목욕탕 신축공사장 인부 우필도씨(37·大邱市東區신기동20의18)와 李相祚씨(26·慶山邑北洞269의21)등 2명이 넘어지는트럭에깔려 경북대의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으나 우씨는숨지고 李씨는 중태다.

이들은 이날 신축공사중이던 목욕탕지하실의 빈곳을메우기위해 흙을 싣고와후진하는 경북7아 1814호 덤프트럭(운전사金鍾權·26)의 뒤바퀴가 지하실 구덩이에 빠지면서 차체가 왼쪽으로 넘어지는 바람에 깔려 변을당했다.【聯合】

民願봉사대 큰好應

【大田】충남大田市는 시민들의 민원을 직접찾아가 처리해주는「생활민원기동봉사대」를 설치한지 1년만에 총 8천1백96건의 민원을 처리해줌으로써 많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있다.

8일 大田市에 따르면 이「생활민원기동봉사대」는 주택가주변의 상·하수도및 가로등고장등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위해 지난해 4월17일 발족한이래 6월말현재 모두8천1백96건을 처리했고 올들어서만 6월말현재 4천8백98건의 민원을 해결했다.

민원처리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상수도보수가 2천2백98건으로 가장많고 ▲하수도보수 1천2백30건 ▲가로등수리 1천68건 ▲대형사고처리 1백2건 ▲도로보수 1백1건 ▲오물수거 84건 ▲구획정리보수 15건등이다.

한편 이「생활민원기동봉사대」는 차량30대와 담당직원92명을 7개반으로 편성돼있다.

시민 宋英玉여인(39·大田市梧井洞)은『지난 3월에 집앞 상수도가 터져 신고한적이 있는데 10여분만에 봉사대가 도착, 즉시 처리한적이 있다』면서『시청이 무언가 달라지고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다.【聯合】

大學生 바캉스強盜
2명검거 친구와 이모 아파트털어

7일상오9시40분께 서울江南區盤浦2洞 강남아파트7동506호 鄭春紅씨(48·여)집에 鄭씨의 이질 李相寅군(20·M大산업공학과1년)과 친구 金慶潤군(D大불문과1년), 柳根哲군(20·K大2년)등 3명이 침입, 혼자집을 보던 鄭씨를 면도칼로 위협, 농우화끈으로 손발을묶고 테이프로 입을 막아 욕실에 몰아넣은뒤 장롱을뒤져 현금1백45만원을 털어 달아났다.

이들은 범행후 경비실앞을 지나다 때마침 끈을푼 鄭씨가 아파트창을통해『강도야』라고 소리쳐 경비원 石花男씨(40)와 순찰중인 경찰에 金군과柳군만붙잡혔다.

경찰에서 이들은 달아난李군이『이번 여름엔 승용차로 바캉스를 떠나자』며 이모집을 털자고 제의, 이같은범행을 했다고 말했다.

靑銅 관세음보살像
金陵 靑岩寺서 盜難

【金泉】8일새벽 경북 金陵郡甑山面坪村里 靑岩寺(주지 金正休·34)극락전에 도둑이들어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조선조에 만든 42수 청동금불좌상을 모조품과 바꾸어놓고 훔쳐간것을 이절 수도승 金鍾씨(29)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도난당한 관세음보살좌상은 지난 78년 일반 동산지방문화재로 지정되었으며 청동금불좌상으로 높이 80㎝에 42개의 손이 각각 다른모양으로 제작 된것이 특징이다.【聯合】

민속觀光마을에 展示館 세운다

【天安】충남牙山郡松岳面外岩里 민속관광마을에 건립되는 전통 30평규모의 민속마을전시관기공식이 8일 상오10시30분 현지에서 있었다.

이마을은 지난78년에 牙山군 관내에서 유일한 민속마을로 지정되었는데 1백26채의 집중 고택이 14채、초가가12채、통기와가 2채、개량주택이98채등이다.【聯合】

大淸多目的댐 水位
담수이래 최저記錄

【淸州】가뭄이 계속되고 있는 요즘 大淸다목적댐의 수위도 크게 낮아져 지난 80년 6월30일 담수를 시작한이래 최저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大淸다목적댐 관리사무소(소장 崔武起)에 따르면 8일현재 댐 수위가 59·81m까지 내려가 평균수위인 76·5m에는 15m 이상이, 최대수위 80m에는 무려 20m이상이나 낮아졌다는것이다.

지금까지의 최저수위는 지난해 6월20일의 60·17m였다.

大淸다목적댐 관리과 張化一과장은『다목적댐인 大淸댐은 이처럼 심한 가뭄에도 계속해서 1일 2백여만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다』고 말하고『大田과 淸州에 공급되는 약20만톤의 생활용수도 당분간은 걱정없다』고 말했다.【聯合】

참깨·땅콩農家에
京畿道, 40억支援

【水原】경기도는 농가소득증대를위해 올해부터 오는86년까지 참깨·땅콩등 10대전략작목재배농가에 총40억원을 보조하고 4백68억원을 융자지원키로했다.

8일 도에 따르면 이기간중 10대전략작목의 품종을개량하고 시설을 확충·보완하며 주산단지를 집중육성한다는 것이다.【聯合】

5行뉴스

◆15일부터 避暑客特別輸送 교통부는 15일부터 8월15일까지를 피서객 특별수송기간으로 정하고 4백73개의 임시열차를 증결운행하며 고속버스는 7천3백70회, 해운은 7백42회를 증회운행, 운항토록 했다.

◆義城에우박, 作物피해2억 【安東】7일 하오 4시50분부터 5분동안 경북義城郡點谷面일원에 콩알만한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에 2억원의 피해를 입혔다.【聯合】

격조높은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은

새시대를 사는 엘리트여성들의 다정한 벗입니다.

1982년 7월 11일 자
인기절찬 판매중!

판매처 : 각 한국식품점

한국인이 경영하는 중국식당

Rose Garden Restaura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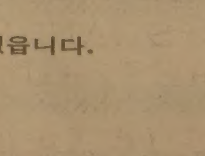
◎8월3일부터 FULLY술 판매허가 나왔음.

각종 중국요리 전문
각종 파티 주문 배달

*회의실 완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교민 여러분을 모시겠읍니다.

영업시간 : 월~목 11 : 00 AM— 1 : 00 PM
금~토 11 : 00 AM— 2 : 00 AM
일요일 4 : 00 PM—10 : 00 PM

538 ST. CLAIR AVE. WEST.
TORONTO, ONT.
656—0456 654—6609 유창균



한국전집및 고전현대소설

◉한민족의 운명과 진로를 결정지어온 역사의 주역들—한국인물사(10권)
◉모든 여성에게 멋과 알뜰살림의 지혜를 심어주는 당신의 백과—현대여성 새생활백과(8권)
◉동양의 지혜, 처세의 경락서, 영원한 감동을 주는 불멸의 고전—박종화의 삼국지(6권)
◉피로 물들인 태평양! 인류사상 최대의 전쟁로망—태평양전쟁사
◉인간문화재 제38호 성대교수 황혜성의 가정요리(2권)외 박헬레나편 가정 꽃꽂이(2권)
◉소설로 쓴 한국 근대사라고 요약할 수 있는 박경리의 "토지"(6권)
◉유주현 역사소설군 대전집
◉동아방송편 광복20년(25권)
◉숲을 보되 나무를 논하지 말자의 옛날 옛날 한 옛날(이장우 저)
◉불멸의 작 천세욱편의 수호지
◉우리 어린이들의 벗 디즈니 유치원백과(12권)및 꽃동산(10권)
◉언제나 아껴지는 장삼직편의 대 한한사전
◉양방, 한방, 민간요법의 대 가정종합병원 외 수십종목 주문, 배달가능(단, 토론토지역)

범한서적북미주총판
1712 QUEEN ST. E. TORONTO
(416)690—2216 8am—10pm

한국、중거리슛 묶여 逆轉敗

國際남자籠球 緖戰서 스웨덴長身숲에 빛잃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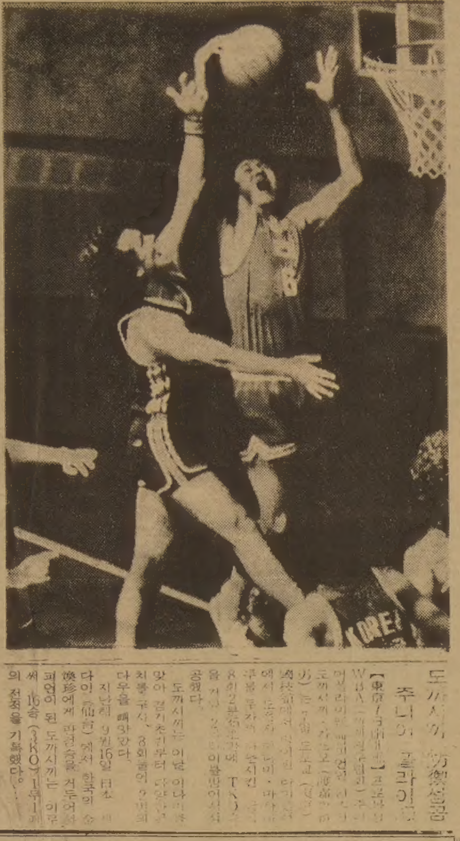
體力과 速攻에 휘말리고 집중적인 골밑슛 못잡아

82년도 서울 국제초청 남자농구대회가 8개국 9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8일 장충체육관서 개막됐다。李東緣 농구협회장의 토스로 시작된 A조 한국대표―스웨덴의 대전서 한국대표는 체력과속공에서 밀린데다 스웨덴의 집중적인 골밑공격을 막지 못해 80―74로 역전패했다。

1m98 빌마가리티、38득점 리바운드 16개

한국이 자랑으로 삼고있는 중거리슛도스웨덴의타이트한 맨투맨에 막혀 빛을잃었으며 게임을풀어가는 어시스트가 없어 후반 스웨덴에 추월당하고 말았다。 스웨덴은 1m98의 장신 빌·마가리티가 38점을 올리고 리바운드16개를 잡아내는 대활약으로 첫판을 승리로 이끌었다。 농구는 신장이 절대치라고 하지만 신장을 살리는 작전과 작전을 뒷받침해 주는 기술이 있어야 한다。 또한 확률로보아 외곽 중거리슛보다는 골밑슈팅이 승부에서 유리한것으로 나타나 있다。 李忠熙 朴守教의 중거리슛이 승부 포인트인 한국으로서는 두선수의 외곽슛이 막히면 대세는 기울어지게 된다。

장신과의 대결에서 외곽슛을 살리는 방법은 재빠른 패스워크。 골밑을 대시하며 상대방의 수비를 교란한다음 외곽에대기하고있는 슈터에게 찬스를 만들어 주어야한다。 전반초 한국은 2진을내세워 탐색전을벌인후 4분36초만에 베스트를 기용、스웨덴과맞서 전반서 9번의 타이와 5번의 역전을 거듭하는 격전을 벌였다。 朴守教 李忠熙의 외곽슛이 스웨덴의 수비를 피할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40―34로 전반을 앞선 한국은 후반들어 체력과 속공에서 열세를 보였으며、李忠熙 朴守教가 스웨덴의 적극방어로 슛찬스를 잡지못한채 슛만 남발하다가 후반11분께 58―56으로 역전당했다。 이 한국의 골밑을 뒤흔들며 스웨덴은 마가리티、칼손등 외곽슛을 적중시켜 승기를잡았다。 한국은 마지막으로 프레싱을 벌였으나 점차를 좁히는데 그쳤다。



◇골밑 리바운드爭奪 A조 한국과 스웨덴의 대결、한국의 朴仁圭(中6번)가 스웨덴 골밑에서 리바운드를따내고 있다。

80-74

B조 뉴질랜드勝利 3차례 延長 墺에 77―75로

B조첫경기서 뉴질랜드는 3차례연장끝에 77―75로 오스트리아를 물리쳤다。 뉴질랜드는 전반서 32―30으로 앞섰으나 후반에 오스트리아에 추격당해 59―59타이를 기록、연장에들어갔다。

◇제1일전적 ▲A조

스웨덴 80	46 / 34	34 / 40	74 대한민국표
뉴질랜드 77	18 27 32	16 29 30 (延)	75 오스트리아

金鉉潤、연속RSC勝 기염

아마복싱、플라이級 8強진출

제9회 아시아경기대회 파견아마 복싱대표선수 3차선발전 이틀째경기가 8일 동국대체육관서 속행、플라이급의 金鉉潤(원진체)은 李相秀(부산한체)를 2회 RSC로물리쳐 2연속 RSC승으로 강펀치를 과시했다。 첫날 崔順贊을 1라운드55초만에 RSC로 [illegible] 이날도 처음부터 다양한 공격을 전개、경기의 주도권을 잡은뒤 2라운드종료 [illegible] 8강에 진출했다。 라이트플라이급 3회전서 金光錫(한체)은 강호 [illegible]을 판정으로 물리쳤다。 金은 원투스트레이트로 초반부터 일방리드、8강에 진출했다。

英 무어크러프트 陸上5천m世界新

【오슬로7日AP=聯合】 英國의 데이비드·무어크러프트는 6일 오슬로 비슬레트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세계육상대회 5천m에서 13분0초42를 기록、종전 세계기록을 5초72앞당기는 세계신기록을 수립했다。

亞洲경기대회 참가 배드민턴 選手선정

대한배드민턴협회는 8일제9회 아시아경기대회에 참가할 남녀대표선수를 선발、체육회에 추천했다。

▲남자=朴柱奉(전주농고) [illegible]學(인체대) 李恩求(성무) 金炳植(한체대학원) 李得春(원광대) 成漢國(한체대)

▲여자=金練子(경남대) 姜幸淑(한체대) 柳常希(경남대) 黃善愛(한체대) 金允淑(경북대) 宋恩周(경북대)

4強、主戰선수 負傷에 고심

오늘새벽 伊·폴란드、西獨·프랑스…決勝진출 激突

【마드리드7日=聯合】 이탈리아―폴란드、西獨―프랑스、세계 축구팬들의 관심은 9일 새벽(한국시간) 열리는 제12회 월드컵축구대회 준결승전에 쏠리고 있다。 1、2차리그의 험한 고개를 넘어 4강 고지를 점령한 이들은 각각 必勝을 다짐했으나 전문가들은 西獨과 이탈리아가 결승전에 진출할 가능성이 큰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러나 예상은 예상일뿐이다。 준결승 무대에서 또 어떤 충격적인 이변이 일어날지 모른다。 4강의 공통적인 고민은 주전급선수들의 부상이다。

지난4년간 유럽무대에서 한번도 진 일이 없는 西獨은 5명의 부상선수 때문에 고민하고있다。 이번대회 4골을 기록하고있는 주장 루메니게를 비롯、우베·라인더스、한스·브리겔、로타·마테우스 등이 현재 경상 컨디션을 유지못하고 있다。 루메니게는 스페인과의 대전 후반에서는 뛰지못했다。 프랑스도 부상문제는 심각하다。 스트라이커인 도미니크·로슈토가 북아일랜드와의 경기때 다친 발목상처로 고통을 받고있다。 西獨은 54·74년 월드컵우승팀。 현재까지 프랑스와의 국제경기에서 15번 싸워 각각 5승5무5패로 互角을 이루고 있으며 가장 최근 경기(80년)에서는 西獨이 4―1로 승리했다。 西獨과 프랑스는 월드컵에서는 꼭 한차례맞섰다。(58년 월드컵3、4위전서 프랑스가 6―3으로 승리)。 섭씨 40여도의 찌는듯한무더위도 게임에지장을줄것으로보인다。 이탈리아 역시 부상에대한 고민을안고있다。 노장 GK 디노·조프가 對브라질전서 갈비뼈를다쳐치료중에있고 FB풀비오·콜리바티는발꿈치부상、HB마르코·타르델리도 다리를 다쳐 연습에 참가하지 못했다。

이탈리아는 수비의 기둥인 젠틸레가 1게임 출전정지처분을받아 준결승전에 나오지 못하기 때문에 콜리바티마저 빠지면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된다。 폴란드의 主砲 보니에크도 출전정지 벌을받아 對이탈리아전에 출전하지못한다。

英도박사들、이탈리아優勝점쳐

伊우승률5분의4

◆…런던 도박사들은 이탈리아·폴란드·西獨·프랑스 등 4강으로 압축된 제12회 월드컵의 우승확률에서 이탈리아를 수위에올려놓았다。 도박사들은 이탈리아의 우승확률을 5분의4로 점쳤으며 다음으로는 西獨이 2분의1、프랑스가 3분의1、폴란드가 5분의1순으로 돼있다。 도박사들의 이같은 예측은 대회초반 2차리그진출 확률과는 현격한 차이를보여 이목을 끌고있으며 당시 이탈리아의 진출률은 40분의1에 불과했으며 서독은 9분의2、프랑스가 18분의1이었으며 폴란드는 무려 66분의1로 뒤처졌다。

4強 歷代전적은 無勝負의好敵手

4개팀 戰力비슷

◆…준결승서 맞붙은 프랑스―서독、이탈리아―폴란드는 지금까지의 많은국제경기서 무승부를 기록하고있는 호적수。 프랑스와 서독은 지금까지 15차례대전서 각기 5승5무5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탈리아와 폴란드도 모두 7번을싸워 1승5무1패로 호각。

브라질〃敗北해도 고개쳐드는것이 優勝만큼 중요〃

예상외 歡迎대단

◆…브라질 선수단은 7일 예상외의 환호를 받으며 귀국。 공항에 나온 수백명의 팬들은 對이탈리아戰 패배의 울분과 실망의 빛을 보이지않고 『브라질! 브라질!』을 외쳤으며 한 관중은 『패배하더라도 떳떳하게 고개를 쳐드는것이 승리만큼 중요하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나왔다。 그런가 하면 『오늘의 특별메뉴―발디르·페레스식 치킨』이란 힐난조 플래카[illegible] 플레이를 꼬집은 것。 한편 큐티노 브라질스포츠연맹회장은 브라질의 패배를 「운명」이라고말하고 산타나 감독이 팀에 그대로 남도록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illegible]은 「변경됐다」고 발표했다。 소아과 의사인 소크라테스는 스페인으로출발전에 사생활에 전념할수 있도록 2년내 축구계를떠나겠다』고 말했었다。

아르헨 反則많아

◆…1·2차리그 총48게임중 5명의 선수가 경기도중 퇴장당했으며 심판의 옐로·카드를 받은선수는 79명으로 나타났다。 이를 팀별로보면 아르헨티나가 마라도나를 포함 2명이 퇴장당하고 7명이 경고를 받았으며、이탈리아는 2번의 경고로 對폴란드전에 출전할수 없게된 젠틸레등 7명의 선수가 경고를 받았다。

「로시」에英雄대접

◆…對브라질전에서 3골을 혼자따내 이탈리아의 영웅이된 파올로·로시는 국내구두제조업체인 비제바노에서 그가 신을 신발을 평생 무료공급받게 됐을뿐만아니라 산드로·페르티니대통령으로부터 기사작위와 동등한 시민훈장까지 수여받게 될것이라고。 로시는 이밖에 페스카라지역의 포도주 상인들로부터 1천ℓ의 포도주를 기증받았다。

敗將감독留任될듯

◆…2차리그서 탈락한 아르헨티나의 메노티 감독은 현직을 계속 맡게될것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은감수해야 할것이라고 아르헨축구협회장이 시사。 6일 입국선수들과 함께 귀국한 줄리오·그론도나회장은 『메노티감독의 계약이 올해말로 끝나 월드컵참가전에 계약경신을 요구했다』고 밝히고 『이제형편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메노티감독은 지금까지와 다른 대우라도 동의해야할것』이라고 말했다。 메노티감독은 아직 귀국하지않고 유럽에 남아있다。

最多失點에 施賞

◆…이탈리아 시실리섬 조그만 마을인 세르다[illegible]은 월드컵 1차리그서 가장많은 실점(13골)을한 엘살바도르 선수단에 이지역특산물인 아티초크 (풍뎅지) 2천5백개를 시상키로 결정。 또 가장빨리 골을 먹은 프랑스(對 잉글랜드戰 27초)의 GK 장·루크·에토리에게도 2천5백개의 아티초크를 보낼것이라고。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도까시끼、防衛성공 주니어 플라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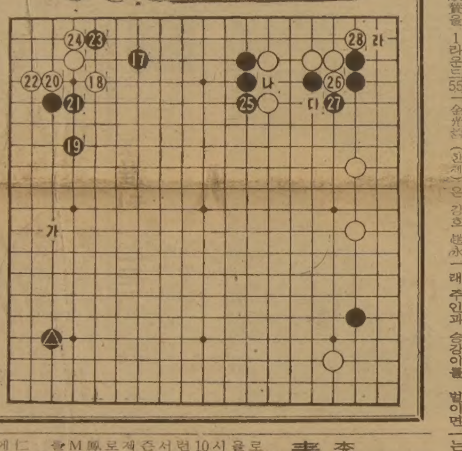
【東京7日聯合】 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 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 도까시끼·가쯔오(渡嘉敷勝男·일본)는 7일 도꾜 [illegible]에서 벌어진 [illegible] 도전자 [illegible]를 8회2분[illegible]만에 TKO로 [illegible]。 도까시끼는 이날 [illegible] 맞아 경기초반부터 [illegible] 8회들어 [illegible] 다운을 빼앗았다。 지난해 9월16일 日本 센다이(仙台)에서 한국의 金煥珍에게 판정승을 거두어 챔피언이 된 도까시끼는 이로써 16승(3KO)1무1패의 전적을 기록했다。

제13기 名人战 挑战5番棋

第3局 第3譜 17~28 (각5시간·덤5집반)

黑(名人) 曺薰鉉〈2勝〉

白(挑戰者) 徐奉洙〈2敗〉



布石의 虛虛實實

黑17로 육박하여 白18에서 24까지 삽시간에 두어졌다。 전문가들의 말을 빌면 『필연의 과정』、즉 말해서 누가두어도 이렇게 될곳이라고 한다。

■ 순풍에따라 두듯이하던 名人은 黑25에 비로소 3분을 생각했다。 좌상측은 白24다음 黑「가」로 벌리는데 까지를 정석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좌하귀 黑▲표와의 조화가 마땅치 않다고 본것이다。

그렇다면 좌상 黑21까지의 정석은 名人으로서 뭔가 예상이 빗나간꼴이 아닐까。 공연한 생각마저 들겠지만 黑25 굉장히 좋은곳이란 평이며 이근처 포석전은 절정에 달한느낌이다。

더우기 白은 黑이「나」로 째면 26으로 솔고나갈 요량인데 그걸 슬쩍비킨 黑25는 묘미진진、어떻게 보면 白26을 일부러 종용하는 것같기도 하다。

도전자는 여기서 주춤했다。 그리고 역시 3분을 생각하더니 일단 白26。 오기로라도 이렇게 둘밖에 없는곳이다。

다음 黑27때 도전자는 일단 손에 쥐었던 돌을 통속에 도로넣고는 고개를 젓는다。 간단하게 白「다」로 끊어 黑한점을 잡는것은 실리상 너무 시시하다。 이래서 강하게 젖힌 白28은 25분 (실은 이것이 도전자로서 이바둑의 최장고 기록이다)을 소비한 호착이었다。

名人은 이수가 뜻밖이었는지 엉거주춤한 자세로 응수를 모색한다。 생각하서는 黑「라」로 젖히고싶은데 어떨까。 [一力]

태권도 월드컵開催협의차 歸國 魚秀一 스페인代表팀코치

現地엔 태권도人口 10여만

유럽의强者 각종大會 석권

國王도熱意…體育勳章받아

5分間 인터뷰

◇魚秀一코치

『월드컵축구의 열기는 정말 굉장합니다』 스페인 한국교민회 부회장이자 스페인 태권도대표팀코치로 활약하고있는 魚秀一씨(38·태권도6단)는 월드컵축구의 규모와 관심이 엄청났다며 더욱 놀랐다고 전한다。 1차리그 경기장소인 코루나市에 거주하는 魚씨가 월드컵열기를 구경하다 말고 모국을 찾은것은 세계태권도연맹 金雲龍총재와 태권도월드컵대회 스페인 개최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였다。 내년1월 바르셀로나市에서 첫 월드컵대회를 유치할 계획을 세우고 추진중이라는것。

스페인에 살고있는 우리나라 동포는 1천여명、태권도사범、병아리감별사、유학생이 많고 원양어업기지인 라스팔마스에도 5천여명의 동포가 있다。 스페인의 태권도 인구는 공식적으로 5만명이지만 실제로는 10만명을 육박하고 있다는게 魚씨의 이야기。

카를로스 스페인왕은 태권도를 하지 못하지만 체육부등에서 태권도가 경기력 향상에 큰 관심을 가져 유럽의 태권도 강국으로 등장했다。 80년 가을 덴마크에서 열린 유럽대회서는 스페인이 우승을 차지、魚코치등이 국왕으로부터 치하를 받기도했다。 지난4월에 또 유럽선수권대회서 스페인이 은메달 2、동메달 5개를 차지하자 스페인 정부에서는 대표팀을 이끈 魚코치와 李선재사범(6단)에게 동양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체육훈장을 수여하기까지 했다。

프로야구 李鍾道 홈런2發 靑龍、三美잡아

李鍾道가 2발의 홈런아치로 프로야구 후기시즌개막전을 화려하게 장식했다。 전기시즌 개막전에서 극적인 10회말연장 역전끝내기 홈런을 날렸던 李鍾道는 7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후기시즌 개막경기서도 1회말 선제 솔로·5회말 2점홈런으로 三美슈퍼스타스선발 [illegible]를 통타、타점을 올리며 MBC靑龍에 7―0의 승리를 안겨주었다。

▲감독 [illegible] 4번 지명타자、白仁天도 5[illegible] 3번 [illegible]에이어 솔로홈런 [illegible] 3타수 3안타 [illegible] 전후기 통산 1백39타수 51안타 타율4할1푼8리로 타격선두를 고수했다。 白仁天은 홈런9개 李鍾道는 8개로 11개의 선두 [illegible]를 뒤쫓고있다。 [illegible] 롯데가 3―2로 승리 [illegible] 大邱경기 [illegible] OB는 비로 [illegible]。

◇7일전적 ▲서울

삼미	000 000 000	―0
MBC	101 031 10×	―7

▲홈런=李鍾道(1회·5회2점) 白仁天(5회·이상 MBC)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朴婉緖 作 金光培 畵 <158>

응달 ㊳

폭신하고 질기고 곱고 값싼 이불을 고르기위해 패오대 주인과 승강이를 벌이면서도 오목이는 연방 밖에 있는 일환이에게신경이 쓰여졌다。 시장의 잡답에 밀리고있는 일환이가 잠시라도 눈을 떼면 길을 잃고말 어린애처럼 보여서 마음이 안놓였고、따로 볼때와는 달리 군중속의 그가 유난히 얼돼보여 그녀가 평생 돌봐주지않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같은 게 은근히 만족스럽기도 했다。

그러나 그녀가 마침내 흥정을 끝내자마자 일환이가 잽싸게 달려들어 돈을 치렀다。 그럴 때 그는 누가 뭐래도 의젓한 가장이었다。 그녀가 이불보따리를 머리에 이었다。 일환이가 앞장서서 사람을 헤치고 시장을 빠져나왔다。

이불 보따리에 짓눌린채 뭐 더 살게없을까 두리번대느라 자꾸만 뒤지는 오목이를 뒤돌아보면서 대강 해두라는듯이 일환이가 눈을 부라렸다。 오목이는 이불 보따리때문에 짓눌린 모가지를 더욱 움츠리면서 날름 혀를 내밀었다。

일환이가 큰 길가에서 자기 짐을 내려놓고 말없이 오목이의 머리에서 이불 보따리를 받아내려 그위에 올려놓았다。

『괜찮아요。 쉬지않고갈수 있어요』

『택시 타고가』

『택시를? 미쳤어。 우리가 무슨 부자라고』

『부자는 아니라도 결혼한 날 아니니?』

일환이가 인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작은 눈에 측은해하는 정이 넘쳐 보기 좋게 부드러운 얼굴이 됐다。 그들의 많은 짐때문인지 번연히 빈 차를 몇번놓치자 일환이는 험악한 얼굴로 차길로 뛰어 들어 몸으로 차를 막아세우고 짐을 실었다。 오목이는 길 잃은 어린애처럼 어릿어릿해뵈는 일환이도 좋았지만 이렇게 우락부락 힘 세고 경우 밝라 보이는 일환이는 더욱 좋았다。 그래도 둘이 나란히 차속에 들어앉자 마자 오목이는 입을 뾰죽하게하고 종알댔다。

『남자가 고까짓 짐이 무거워서 택시를 타요, 타길』

『가뜩이나 작은 네 키、머리하고 몸뚱하고 숫제 붙어버릴까봐 겁이 나서 차잡았지 나 위해서 잡은 줄 아니?』

『연탄하고 쌀 살 돈 남았어요?』

『왜 자기도 돈 있다고 으스대니』

『있긴 있어 그렇지만』

『그렇지만 아까워?』

『아깝긴、연탄하고 쌀은 남자 돈으로 사고싶어』

『마치 다 자기 돈으로만 산것처럼 굴고있네』

『화 났어?』

『아냐。 쬐그만 게 그래도 속에 들 건 다 든것 같아 기특하다』

일환이가 빙그레 웃으면서 팔을 둘러 오목이의 어깨를 감쌌다。

『염려마、쌀도 몇말 사고 연탄도 백장쯤 들여놔줄테니』

『어머 자기 부자네? 그럼 돈많이 쓰고도 그만큼이나 남았어?』

『네가 들으면 실망하겠지만 실상 난 모아놓은돈도 없었어。 술 먹어 없애고、여자한테 털려 없애고 뭐 배운다고 없애고』

『뭐 배우는게 왜 없애는거야? 나 앞으로 구두쇠 여편네 노릇 할거지만 자기가 뭐 배운다면 조금도 돈 안아까와 할거야』

『그게 그렇지 않아。 하는 일에 싫증이 나고 답답하면 뭘 배우러 다녔으니까。 냉동기술뿐인줄 알아? 운전、정비、목공、권투까지 했어 이노릇에서 빠져나갈 구멍이 있을까해 닥치는대로 찝쩍거려본걸』

한국일보 533·2361

Maximode

ㅇ 숙녀를 위한 수입품 불란서. 이태리 패숀 옷을 전시한 현대식 쇼우룸.
ㅇ 가격이 저렴합니다.
OPEN : MON(월) ~SAT(토) 9 a.m.~5 p.m 오전 9 시 ~ 오후 5 시
147 Spadina Ave. #200 2층
☎ : 596－1413

JAGUAR 종합보험
* 저렴한 염가로 여러분께 봉사함.
* 자동차보험.
* 비지네스 보험.
* 집보험.
* 생명, 상해보험, 등
⊙영어를 할수있는 한국학생 (파타임) 구합니다.
1033 PAPE AVE.
전화 : 425－5656

거구장
결혼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월～수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한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이한구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광고신청은 광고부로….
만족할만한 광고효과를 볼 수 있는 한국일보 광고를 많이 이용해 주십시요. 여러분께 보다 친절한 마음으로 신속, 정확히 맡은바 정성껏 여러분의 광고를 살펴 드리겠읍니다.
◎일반광고 : 최성조
◎안내광고 : 박경옥
토론토 한국일보 : 533－2361～4

SHANGHAI RESTAURANT
드디어 해삼탕 개시!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내고향통닭집
냉면 칼국수 전문
658½ BLOOR ST. W.
☎ : 537－0432

한국일보

"醫保시범지역 擴大않겠다"

金保社、保社委답변 醫藥분업、實施후 문젯점補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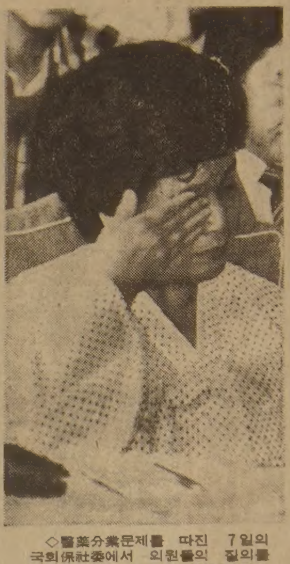
해당藥局 수입보장 방안을
醫保지정 申請不應 대책은
질문

국회는 7일 保社委를 열고 金正禮보사부장관으로 부터 2種醫療보험 示範사업및 이에따라 최근 물의를 빚은 醫藥 分業분규에 대한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이날 李憲琦(民正) 金燦于 鄭貞熙(이상民韓) 金翰宣 金完泰(이상 국민) 金正秀 白瓚基의원(이상 議政) 등은 질의에서 ▲의료시범지역의 확대실시를 保할용의 ▲醫保시범지역 약국의 수입격감에 따른 대책 ▲醫保시범지역 약국이 醫保지정기관 신청에 불응할 경우의 대책등에 대해 물었다。

金장관은 『의료보험시범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에 관계법규가 개정되어야 했다』고 밝히고 『88년까지 의료보험이 전체국민의 93.4%까지 확대 실시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藥價정찰제는 조속한 시일안에 관계부처와 협의를거쳐 결론을 내리겠으며 의료보험조합의 一元化를 위해 연구중이며 이에대한法案을 오는9월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金장관은 이에앞서 보고를 통해 『앞으로 6개월간 처방전 발행결과를 분석검토하여 그이행상태가 바람직하지 못할경우 醫藥協業추진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제도적인 補完策을수립하겠다』고말했다。



◇醫藥分業문제를 따진 7일의 국회保社委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있는 金正禮보사부장관。제5공화국출범후 첫女性장관이자, 女性장관으로서는 첫국회답변에 나선金장관은 의원들이 질의를 벌이는 동안 눈이 피로한듯 가끔손으로 눈을 부볐다。

醫·藥師출신 의원들 利害 엇갈린 논쟁도

의원들은 이어 ▲醫藥分業이 의사·약사양성과醫·藥大學의 교육에 미치는영향 ▲水因性전염병예방대책 ▲輕微한疾患이나 慢性病에대한 약사의 직접投藥을 제도화할용의는 없는가고 질의했다。

이날 특히 醫師출신과 藥師출신 의원들은 醫藥分業문제를 둘러싸고 논쟁을 벌였는데 의사출신의 金燦于의원은 『醫藥分業을 강제화할 경우 많은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대책은 무엇인가』고 물었다。

이에대해 藥師출신의 金完泰·金正秀의원등은『醫藥分業이 과학적처방과 조제에의한 의료서비스의 개선과함께 의약품의 濫用을막고 배합禁忌및 毒劇物의 과다사용을 막을수있다』며 강제적 醫藥分業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李憲琦、金翰宣의원등은『보사부는 醫師會와 藥師會등 利害집단의 대립처럼 부각된 이번 醫藥分業분규에 지나친 조정역할에만 매달림으로써 국민보건이란 본래기능에 소홀했다』고 비난하고 『작년 1차 시범실시지역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시행치않고 다시 2차시범지역을 확대한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대해 金正禮보사부장관은 『앞으로 의료보험 시범지역의 확대는 더이상 하지않겠다』고 말하고 『의료보험 시범지역실시에 따른 문제점은 나름대로 보완했지만 醫藥분업은 보완대책이 미흡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미 지정한 6개의 2種의료보험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기본방침대로 밀고 나가겠다』고 밝히고 『현재 구성을 추진중인 醫藥協業추진위원회에서 의견을 종합、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스리랑카 體育長官 全대통령、接見환담

全斗煥 대통령은 7일 상오 靑瓦臺에서 스리랑카의 페레라 體育및議會省장관을 접견하고 환담했다。

이자리에는 李源京체육부장관이 배석했다。

關稅 8%로 균일화를
KDI 건의 시설재등 稅減免폐지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관세정책의 효율적인 운용을위해 內需用 수입품에대한 관세율을 8%로 균일화하고 각종관세 감면제도를 폐지하며 유망幼稚산업에 대해서는 시한부적인 잠정세율을 적용하는등 대대적인 관세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다고 건의했다。

KDI는 7일상오 KDI 대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정책의 현황과 개편방향에 관한 정책협의회에서 현행 관세제도는 산업보호기능을 다하지 못하고있고 산업간의 중립기능을 발휘하지못하고 있을뿐아니라 산업지원용 관세감면과다로 소득분배의 형평을 저해하는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다고 지적、관세를 더이상 보호정책의 수단으로 삼지말고 산업경쟁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KDI는 현재 0%에서 1백%까지 다기화되어있는 관세율을 수출용 원자재를 제외한 모든 내수용 수입품에 대해서는 농산물에 이르기까지 8%관세를 균일과세토록해야 한다고 제시했다。현재 관세율은 원유및 광물류가 0%、기초素材10%、중공업기계류 15%、석유중간제품20%、강판 강선25%、합성수지30%、사무용기기와 페인트 타이어가 40%、냉장고 라디오 신발 섬유류 50%、담배 술 자동차 보석류가 각 1백%이며 수출용 원자재는 8%의 관세를 일단 물리되 수출이 이뤄지고 나면 관세를 전액되돌려주고있다。

KDI는 균일관세율 실시로 관세가 대폭 낮아짐에 따라 예상되는 사치품증의 수입급증을 막기위해서는 이들 품목에대한 특별소비세율을 크게 올리고 원유의 관세가 0%에서 8%로 높아지는데 따른 추가부담은 석유제품의 특별소비세율을 그만큼 내려 소비자부담을 줄이도록 촉구했다。

總額 40億弗線 합의
韓日經協 이자율 年6%

【東京7日=宋孝彬특파원】 韓日양국외상은 한국측이 제시한 60억달러의 對韓경협문제에 관해 ①총액40억달러 ②이자율 연평균 6% ③상당액의 상품차관을 공여한다는선에서 조기타결키로 합의한것으로 7일 알려졌다。

李範錫외무와 사쿠라우치(櫻內)일본외상은 한일경협문제의 조기타결 원칙에따라 일본정부가 늦어도 7월25일까지 외무、大藏、通産省과 경제기획청등 관계부처고위 실무자회의를열어 李장관이 제시한 新제안에 대한 대안을 한국정부에 통고키로 했다。

일본측이 내놓은 새대안이 긍정적일경우 한일양국은 8월안에 서울에서 제3차실무자회의를가진뒤 9월 역시서울에서 한일외상회의를 가져 정치적인타결을짓고 10월 東京에서열릴 각료회의에서 일괄처리한다는방침을 굳혔다。

일본정부는 한국이 요구하는 정부개발차관 23억달러를 차관을합한 공공차관으로 제공하고 17억달러의 상품차관은 수출입은행자금으로 충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經協조기妥結 요청 李外務、스즈끼예방

【東京7日=宋孝彬특파원】 李範錫외무부장관은 7일상오 스즈끼(鈴木)수상및 미야자와(宮澤)관방장관과후꾸다(福田)前수상을 예방、경협문제를 조기타결토록 협력해줄것을 요청했다。

스즈끼 수상은 한일관계의 특수성을 감안、경협문제가 조기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간이가면 일본도 어려워지므로 빨리 타결되는 것이 좋겠다고 강조했다。

審判臺오른 「큰손」 李·張부부

◇기소 35일만에 열린 첫공판에 참석키 위해법정에 들어서고 있는 李哲熙·張玲子부부。이번 사건의공판을 지켜보는 국민들은 진실이 철저히 파헤쳐져 다시는 이와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기를바랐다。

개인墓면적 9坪으로
올 教授재임용 탈락자는 百87명
第1政務、국회에 報告書

보사부는 埋葬및 墓地등에 관한 법시행령을 개정、개인묘지의 1기당 墳墓면적을 현행 24坪에서 9坪으로 줄일방침이다。

政務 제1장관실이 지난 1백10회 임시국회에서의 장관답변사항에 대한 조치및 추진상황을 종합、7일 국회에 낸 「국회답변조치결과」 자료에 의하면 보사부는 또 이와함께 묘지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방안으로 재단법인의 私設묘지설치는 계속 추진해나가며 平墳墓및納骨堂설치를 유도해나가는 한편 올부터86년까지 25개소의 火葬場을 설치、火葬率을 높이기로 했다。

이자료에서 농수산부는 전국적인 가뭄대책으로 농업用水개발 10개년계획을 추진、현재 68%에 불과한 水利安全畓의 비율을 86년까지 76%로 끌어올리고 91년까지는 90%로 높일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무제1장관실은 앞으로 이같은 보고서제도를 常設、年2회정도 국회에 내기로 했다。

各部處別 주요답변및 추진계획은 다음과 같다。

▲국방부=육군과 해병은 사병복무기간을 금년부터 1년에 1개월씩 연차적으로 단축해 84년부터는 30개월로 단축할계획。

▲문교부=올해 전국 國·公·私立대학 교직자중 사직자를 포함하여 1백87명이 교수再任用에서 탈락됐다。이중 사립대학의 경우 1백61명이 탈락(교수4、부교수1、조교수18、전임강사29、조교1백9명)됐고 國公立대학은 26명이 탈락됐다。

▲농수산부=86년 쌀 4천1백90만석 생산으로 87년부터 主穀자급。

▲보사부=생활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를 보장토록 83년부터 2년간에걸쳐 보호수준을 향상조정하고 自活보호자의 자녀에 중학생 수업료지급。

▲체신부=20戶이상 자연부락에대한 전화공급을 84년까지 완성하고 86년까지 1백92개 도서지역에 대한 전화자동화완성。

▲동자부=현재 10%인 도시가정용 가스보급률을 86년엔 30%로 늘리고 농촌은 연탄위주로 개선。

行政발전 심포지엄 果川서 이틀간열려

중앙공무원 교육원과 한국행정학회가 공동주최한 行政발전심포지엄이 이틀간의 예정으로 果川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朴贊鉉 총무처장관을 비롯、각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朴東緖교수(서울大)가 「새시대 行政문화의 창조와 공무원의 行態」에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社会漫評

中小기업용 電氣값 10일부터 4·8%내려

오는10일 0시 부터 중소기업용 전력요금이 평균 4·8%내린다。

동자부는 경제기획원 물가안정위원회의를 거쳐 ▲산업용전력으로 피크타임제 적용을 받지않는 用水動力(3백kw미만需用)에 일률적으로 5%를、▲산업용전력으로서 피크타임제 적용을받지않는 水動力(3백kw에서 4백99kw까지需用)엔 일률적으로 5%씩을 ▲산업용전력으로서 최대계약전력이 5kw이상으로 전압이 20kw미만인 업체에는 3%를인하하기로했다。

이로써 중소기업들은 연간 2백8억원의 혜택을받게되어있다。

地平線

월드컵축구가 요즘 신문들의 스포츠면을 온통 메우고있다。축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스피드와 묘기있는 경기에 관심을 크게 쏟게마련이다。때문에 월드컵소식은 아마 어느직장에서나 지금화제에 오르고 있을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4、5일 뒤늦게온 미국신문에는 월드컵보다 윔블던테니스가 더 비중있게 다루어져 있다。미국보다는 축구가 더 널리 보급되어있는 한국인만큼 월드컵이 화려하게 보도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수 있다。하더라도 월드컵에 대한 우리의 요즘 熱氣는 따지자면 TV로「보는 스포츠」일뿐、행동으로써 직접「하는 스포츠」는 아니다。

▼한때 미국에선 우리나라에서 생각하기힘들정도로 색다른 축구熱이 2、3년전부터 일고있다。토요일과 일요일의 워싱턴市근교 운동장에는 국민학교、중고등학교학생들이 축구에 열중하는 모습을 얼마든지 볼수있게 되었다。원색의 유니폼들이 짙푸른 잔디구장에 멋진 조화를 이루고있다。보기만해도 마음이 후련해지고 눈이 아름다와진다。

▼그 다채로운 유니폼의 절반은 소녀아닌 소녀들이 차지한다。우리나라와 색다른 축구熱이라함은 바로 이점이다。멀리서 보면 남녀의 성별이 잘 가려지지 않는다。복장과 직업등에서 미국女性의「男性化」를 흔히 볼수있지만 미국少女들의 공차는 모습에선 우리와의 差異를 더욱 느끼게한다。

▼60년대말과 70년대초、적지않은 미국 젊은이들이 政府의 베트남전쟁개입책에 반대했다。그들은 이른바 反戰운동에 눈길을 보내는 거리의 지경이었다。그들이 달리기쪽으로 관심을 돌리게된 한이유가 克己를통해 그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心理的풀이가 마저있다。70년대중반이후 미국의 스포츠는 大衆속으로 파고들며 生活化의 폭을 계속 넓혀가는 중이다。공원 비슷한 주택가운동장에서 하는 야구에는 으레 많은 女性들이 끼는 실정이다。

▼「하는 스포츠」、생활로 즐기는 스포츠인 것이다。워싱턴주변의 주택가에는 잔디운동장외에 테니스코트가 군데군데 자리잡고있다。실내 테니스코트말고는 모두 무료다。밤에는 전기마저 켜놓고 무료로 마냥 즐길수있다。한두채 서있는 웬만한 아파트에도 테니스코트는 대개 붙어있다。우리나라 아파트村에서는 그런 코트를 좀체 찾기 힘들다。땅이 좁아서 그런 것일까。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건강한 치아는
정기적 검사에서
한인 치과의사 일동

한국관
기계로 뽑는
냉면·짬뽕·짜장면
해장국·곰탕 전문
628 Bloor St. W. ☎: 531-02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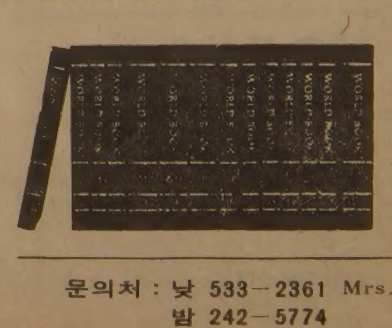
IMMIGRATION CONSULTANTS
이민에 관한 상담환영
- 모든 스폰서쉽 경우
- 모든 종류의 비자관계
- 재판받기전 출정
- 이민국에 가기전 상담
- 미국·캐나다에 있는 부사나 회사에 독립고용 관계
※ 더이상의 문의는 ☎: 291-9590
ZAIDI& ASSOCIATES

협조해 주십시오!!

성하의 계절을 맞아 귀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빕니다.
저희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는 양로원 건립사업의 기초작업으로 여러 양로원(Nursing Home)에 산재해 계신 어른들의 실태파악에 착수했읍니다.
이것은 종국적으로는 한인전용 양로원을 건립하거나 또는 교포 어른들을 기존양로원 한곳에 수용, 언어장벽등에서 오는 불편을 다소나마 덜어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온타리오보건성및 사회성은 호의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캐나다정신건강협회(Canadian Mental Health Association) 온타리오지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온타리오너싱홈협회(Nursing Home Association)와 최선의 길을 모색하고 있읍니다.
양로원 건립은 현단계서는 불가능한 엄청난 사업같기도 합니다만 누군가는 먼 안목으로 시작해야 하겠기에 우리는 미력하나마 그 주춧돌이 되고자 나선 것입니다.
대단히 공·사에 바쁘시겠지만 교포 노인들, 내지는 장차 우리들 자신의 노후를 위한 일임을 유의하셔서 해당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 우송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입원자 성명 ____
생년월일 ____ 성별 ____
양로원 이름 ____
양로원 주소 ____
입원일자 ____
가족성명및 주소 ____
가족 전화 ____
◉ 보내실곳: The Senior Citizens Home Development Society
6042 Paddle Road, Mississauga, Ontario L5N 1X7
한인양로원건립추진위원회
위원장 천중환·이사장 김명규 드림

WORLD BOOK — CHILDCRAFT OF CANADA
아직도 WORLD BOOK을 구입 못하셨읍니까? WORLD BOOK은 북미에서 가장 많이 읽히고있는백과사전의 하나이며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과정에 꼭 필요한 책입니다.
★29,000이상의 사진, 그림, 지도및 차트포함
★어린이를 위한 SPECIAL VOLUME "CHILD CRAFT"



문의처: 낮 533-2361 Mrs. 김
밤 242-5774

「平和협상」위한 최후카드

레이건美政府、레바논派兵의 배경

民間피해·流血확대 막게

PLO 撤收지역 레바논 統治지원

議會등 일부선 長期化될까 우려도

미군의 레바논파병은 비록 그것이 PLO게릴라의 후송을 위한것이긴 하지만 월남전이후, 특히 레이건 행정부 출범이후 첫파병이라는 점에서 미국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에관한 보도는 6일아침 TV뉴스에서 이스라엘 방송을 인용한 미확인보도로 나오기 시작, 마침내백악관의 발표로써 확인되는 과정을 밟았다.

이스라엘의 공격에 밀려 서부베이루트에 포위되어 있는 PLO게릴라문제에 대해 그간 미국에서는 협상의 기운이 느껴지는 많은 보도가 잇따라있었다.

하지만 미군의 파병으로 이스라엘과 PLO의 유혈사태방지에 뛰어들것이란 관측은 그리 쉽지않았다.

1개월여간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침공한이래 미국의 관심은 자주늘어나는민간인피해와유혈사태때문에 날이갈수록 고조되었다고 볼수있다.

신문의 1면은 매일같이 이사태에관한 보도였고 국무성의 1일 브리핑도 80~90%가 이에관한 질문과 답변뿐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헤이그前국무장관이 지난달25일 전격사임하자 이 사태에 대처하는 미국의 건책이 어떤 전기를 맞을것인가에 많은관심이 집중되어왔다.

파병안은현지협상을위해 나가있는 필립·하비브특사의 건의를 레이건대통령이 받아들인것으로 되어있다.

하비브특사는 지난주말 협상의 성공적 수행을위해 베이루트에 잠정적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는 레바논정부의뜻을 레이건 대통령에게 전했고, 캘리포니아에 가있던 레이건 대통령은 지난2일 이를 결정한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발표하기전인 6일아침 미확인보도가 나오면서 백악관은 의회지도자들에게 이 결정을 알리는 법석을 빚어야 했다.

그것은 미국의 전쟁에관한 법이 어떤 분쟁지역에 대한 미국군의 파병은 반드시 의회에 보고해야하며 의회의 승인이 없을 때는 1백20일 이내에 철수하도록 되어있기 때문.

사실상 발표가 있기전 지중해의 미군함대에는 베이루트에서의 임무수행 가능성이 이미 통지되었다고 국방성의 소식통은 밝혔다.

이 소식통은 이런 통지에 따라 지난주말 헬리콥터 적재함1척과 1천8백여명의 해병상륙준비군을 태운 4척의 함정이 레바논으로 향하기 시작했다고전했다.

6일의 백악관 발표는레바논파병군의 역할을 비교적 단기간내(30일이내)에 PLO의 철수작전(이라크 리비아 알제리등3개국에로)을 수행하는 레바논군을 지원하고 철수지역에레바논의 통치가 미치도록지켜주는데 있다고 말하고있다.

또한 안전에대한 보장이 있고 PLO의 군사활동을 중지시키기위해 모든 당사자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만 미군이 개입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보도에접한 의회나 국민의 반응은 다르다.

일부는 물론 레이건의 이런 전격적조치를 지지하고나서는가 하면 일부는 백악관의발표처럼 과연'평화유지'의 역할 만을 할 수있을 것이냐에 의문을표하기도 했으며 불가피한사상자의 발생, 예측했던 기간내에 임무수행이 끝나지 않을경우 장기화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하원외교위 위원장인 클레멘트·자블로키의원은회의를 소집, 이 문제에 관해 정부의 설명을 듣겠다고 말했다.

상원공화당 원내총무 하워드·베이커의원은 레바논사태수습을 위해 미군병력의 사용을 반대해왔으며 이런생각을 레이건 대통령에게 직접 전한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상원의 외교위원장인 공화당의 찰즈·터시의원은 더이상의 유혈을막고 PLO를 레바논에서 내보내는 길은 이길밖에없을것이라고 말하면서 다만 미군개입의 성격과 시간이 명확히 규정돼야한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상원 민주당총무인 로버트·버드의원과 애런·크랜스턴의원은 조심스럽게 레이건 대통령의 결정을 지지하는 뜻을 피력했다.

공화당의 찰즈·매티어스상원의원은 미군파병은 가능한 모든 위협성이 파병이전에 면밀히 검토돼야할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같이 파병을 위험스럽지만 문제해결을위한 중대한 정치적행사로 보는 대부분의 반응들도 대개 두가지 단서를 붙이고 있다.

첫째 백악관의 발표에도 언급되었듯이 파병후의 작전범위가 명확히 규정돼야 한다는것이다. 파병목적이 이스라엘을 위해 레바논을 항구적으로 감시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며 파병활동도 일정적으로 끝내야한다는 것이다.

둘째로 파병뒤 즉각 레바논의 장기적 정치안정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한다는 것이다. PLO를 철수시킴과 동시에 이스라엘군의 레바논철수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쨌든 레이건 대통령의 결정은 그지역이 분쟁지역이라는 점, 또 전쟁당사자들의 성격구조로보아 원하는대로만 되지않을수도있는 위험성을 안고있는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레이건의 충격조치가 1개월여간 엄청난인명및 재산피해속에 계속돼온 분쟁을 해결하기위한적극적인 접근이라는점 또한 틀림없다고 많은 사람들은 믿고있다.

이들은 이번 결정이 내려진 시기에도 많은 의의를 부여하고있는것 같다.

그것은 비록 헤이그장관의 후임인 슐츠장관이 의회인명등의 전이긴 하지만 그가 개인적으로 레이건 대통령과 접촉해왔다는점으로 미루어 레이건 슐츠의 국제문제에 임하는 색채가 가장 잘 나타났다고 볼수있기 때문이다.

【워싱턴7日=李文熙특파원】

◇이 장갑차隊列 이스라엘군의 긴 장갑차대열이 6일 베이루트 남쪽의 다무르시에서 게릴라 소탕작전을 벌인후 다무르시의 황폐한 거리를 뒤로하고 떠나고 있다. 베이루트 외곽까지 진출한 이스라엘군이 다무르시를 통과하면서 맹타를 가해 다무르시는 큰피해를 입었다. 【다무르(이스라엘점령지)6日AP發=聯合】

國際焦點

뿔뿔이 헤어질 PLO

아라파트 이집트로 갈듯

하와트메、알제리行 계획

어딜가도 반기지않는 不請客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가 갈갈이 찢길 운명이다. 과격파는 과격한 혁명정부가 있는 나라로, 온건파는 보수적인 아랍국가로 떠나게 되는 비운을 눈앞에 두고있다.

인구의 아랍국가중 어느나라도 고도로 훈련된 게릴라 8천명을 선뜻 받아들일의사를 보이지않고있다. 화근을 불러들이는 격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보수적인 나라는 PLO속의 「혁명가」들을 겁내고 진보적인 정부마저도 아라파트 PLO의장과의 충돌을 원치 않기때문에 PLO내의 각파들은 서로 흩어져 성격에 맞는 나라를 찾아가게 될 것같다.

아라파트의경우 그의 주요 사무소를 이집트에 설치할것이 예상되나 그자신은 아랍권내 특정한 국가와밀착하지 않고 이나라 저나라로 전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의 측근들은 전하고있다.

이집트는 그를 공개적으로 초청한 유일한 국가지만 그의 망명정부수립을 지원하는 이면에는 게릴라전을 포기하라는 묵시적 압력이 담겨있는 것으로 해석되기도한다.

親蘇팔레스타인해방민주전선(DFLP)의 과격파 지도자인 나예프·하와트메는급진적 정부아래서 은신처를구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란 남예멘 알제리등이 거론되고 있다.

親리비아적인 아베드·제브릴派는 가다피원수밑에서 지내게될것이 예상되며 아랍해방전선등 여타그룹들은 바그다드나 다마스커스로 가게될 것같다.

◇하와트메

◇칼라프

◇아라파트

PLO가 이렇게 이산을하게되는데는 이들을 받아들이는 나라의 속사정도 있으나 PLO내의 권력다툼도 중요한 원인이 되고있다.

이제까지 비교적온건한 아라파트가 각처에 흩어진 4백만 팔레스타인인을 대표했으나 이제는 이들의 목소리가 어떻게 모아질지가 의문으로 남는다.

PLO내의 제2인자인 살라·칼라프는 『우리들의 지상에서의 군사활동은 끝났을지라도 지하활동은 계속될것』이라고 선언하고있어 70년대초의 비행기납치, 암살등으로 투쟁의 분위기로 되돌아갈것같은 예감을 주기도 한다.

지금까지 PLO의 후견인 역할을해온 시리아도 더이상의 PLO가 유입해들어오는 것은 곤란해 하고있다. 시리아에는 이미 20만명의 팔레스타인인이 거류하고있어 최근 시리아의국경수비대는 어린PLO병사가 들어 오려는것을 되돌려 보내기도했다.

이라크는 PLO가 이란과의 전쟁을 치르고있는 자기나라를 『비난했다』는 이유로 PLO를 미워하고있다.

PLO가 이란·이라크전쟁에서 이란편을 든것은 이밖에도 反이란국가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등 여러 페르시아만국가들이 PLO의 입국을 거부하게 만들었다.

리비아가 PLO를받아들이겠다고 제안해 왔지만 PLO로서는 리비아의 지휘를받을 수가 없는 입장이라 지금껏 망설여왔다.

그러나 이같은 급박한사정에도 불구하고 PLO가 항복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워 정치적 자살을 기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朴來富기자】

同床異夢벗고 같은軌 진입

韓日외상會談뒤의 經協진로는…

가을妥結위해 高速진전

남은건 이제政治斷案뿐

◇일본을 방문한 李範錫외무장관이 6일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일본通産相과 회담에 들어가기에 앞서 잠시 환담하고 있다. 【東京6日AP發=聯合】

1년넘도록 줄다리기를 해왔던 한일경협문제는 李範錫외무와 사꾸라우찌(櫻內)외상과의 韓日외상회담으로 실마리를 마련,「가을타결」을향해급선회했다.

한일양국은 8월 실무자회의↓9월외상회의(서울)↓10월 경제각료회의(東京)라는 외교일정에 따라 經協문제를매듭짓고 한일관계의 정상화를 이룩할 예정이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한일간의경협문제가 이처럼 급진전하게 된것은 한일두나라가 모두 이번의 한일외상회담을 유산시켜서는 안된다는배수진밑에 자세와 내용을 타협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첫째 한일양국은 명분과 경협방식을 에워싸고 각기 자기 주장만을 되풀이한끝에 평행선만 그어왔던 교섭을 타결점을 찾을수 있는 현상자세로 전환했다. 양국의 바쁜 정치일정으로 보아 한일간의 경협문제가 이번 열린 외상회담에서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내년으로 넘어갈수밖에없고 한일간 현안문제가 해를 넘겨 장기화하면 한일간의 불편한 관계가 야기될수밖에 없다는 견지에서 이번 회담을 마지막 기회로 삼고 진지하게 임했다. 사꾸라우찌 외상은 회담이 끝난뒤 『이제 한일 양국외상은 종전처럼 평행선을 긋는 교섭을 종식시키고 李장관의 말대로 한일점을 찾기위한 운명을 같이할수밖에 없는 배에 함께 타게됐다』고 말했다.

둘째 한일 양국은 한국측이 요청한 60억달러에 대한 경협문제에 대해 명분과 경협방식에 관한 논의를 빼고 경협내용에 관해서만 협의함으로써 타협점을 쉽게 발견할수있었다. 李장관의 『이번 회담은 과일바구니에 사과가 60개 들어 있느냐,40개 들어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사람이 좋아하는 과일이 들어 있느냐가 문제다』라고비유, 총액40억달러의 규모는 문제가 아니고 경협내용에대해서만 협의했음을 밝혔다.

일본측이 지난 4월말 야나기야(柳谷)심의관을 한국에파견, 15억달러(ODA)+25억달러(輸銀자금)=40억달러 평균금리 6%라는 일본측안을 제시한데 대해 李範錫장관은 23억달러(ODA)+17억달러(상품차관)=40억달러, 금리평균6%라는 제안을 했다.

일본측안과 한국이 새로 내놓은 안은 총규모 40억달러와 평균금리 6%에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다만 정부개발차관(ODA)에 있어서 일본측 안보다 한국측은 8억달러를 더 요청하고 있으며 상품차관을 대폭 요구하고 있는것만이 다른점이다.

일본측은 한국측의 新제안과 일본측 대안에 두가지 공통점이 있으며 한국이 요청하는 개발차관의 범위를 수출입은행자금도포함된 공공차관으로 보충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 양국은 또한 1년넘게 끌어오던 경협문제는 이제 서로의 심중을 모두 읽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타결로 마무리지을 단계에 와있다고 판단한것이다.

이런 상황속에서 李장관의 訪日은 한일외상회담을 결렬시키지 말고 성공시켜야 한다는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일본측은 李외무가 訪日초청을 수락치 않을 것으로 예측했던것 같다.

스즈끼수상과 후꾸다 前수상은 李외무의 訪日에 대해 『배려있는 결단으로 베스트·타이밍이었다』고 평가했다.

盧信永前외무장관이 작년8월 일본을 방문했기 때문에 이번엔 사꾸라우찌외상이 한국을 방문, 한일외상회담을 여는것이 외교적 관례라고 본다면 李외무의訪日은 모험을 수반한 외상회담이었다.

일본측은 이런 관점에서 李장관을 맞기위한 선물을 마련키 위해 부랴부랴 2일 외무, 大藏,通産省과 경제기획청등 관계실무국장회의를 열고 한국이 강력히 요청한 상품차관의 공여에 대해 비록 조건부이긴하나 종래의 거부방침을 바꾸어 한국에 공여키로했다.

상품차관의 공여문제는 막바지에 들어선 한일경협문제의 형태를 가늠할 문제였으며 일본이 상품차관공여에 대한 신축성 있는 자세를 취함으로써 외상회담은큰 고비를 넘겼다.

일본측은 한국측이 요청하는상품차관에 대해 수출입은행자금으로 공여할 방침을 검토하고 있으며 늦어도 2주일내인 7월25일까지는 일본실무진의 검토를 끝내 일본측 대안을 한국에 통고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회담이 李장관과 사꾸라우찌외상이 입을모아 『운명을 함께 할 같은 배에 탔다』고 말하고있으나 종착역도 같을것인지의 여부는 일본이 제시할 새로운 대안에서 대폭적인 상품차관의공여가 포함돼 있을때만가능할 것이다.

일본정부는 말만의 성의표시가 아닌 알맹이있는 대안을 제시치 않았을때 한일경협문제는 또 한차례의 먹구름이 덮일 것같다. 【東京7日=宋孝彬특파원】

◇皆旣月食과 보스턴市 전경 6일새벽 보스턴시 상공에서 개기월식이 펼쳐지고 있다. 이사진은 두장의 네거·필름을 사용, 보스턴시전경과 월식진행장면을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볼수있도록 만든것이다. 【보스턴 6일AP發=聯合】

海外토픽

人體작게하는 괴질

★印度보건당국 초긴장

성기등 신체의 일부를 왜소하게 만드는 괴질이 최근 인도의 西벵갈주에서 극성을 떨고있어 이곳보건당국을 초긴장시키고 있다고.

인도의 PTI통신은 괴질에 걸릴경우 남자는 성기가, 여자는 유두가 줄어드는등의 기이한 증세가 나타난다고전하면서 현재 여자를 포함한 20명이 이괴질로 입원중이며 상당수가 병원을 찾고있다고 5일 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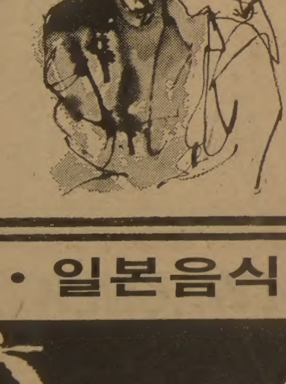
인도보건당국은 괴질의 원인을 규명하기위해 안간힘을 쓰고있는데 일부의사들은 앞서 말레이지아에서 불려졌던 것처럼 이괴질을 「코로·신드롬」으로 명명했다고. 【뉴델리=AP】

한국일보
533-2361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57>

朴婉緖 作
金光培 畵

응달 ㊲



오목이는 뭔가 속수무책의 느낌으로 별안간 말이 많아지고 표정이 돌변한 일환이를 바라보기만 했다. 그는 꼭 고아원 수제비국 얘기를 할때처럼 수다스럽고 불행한 표정을 짓고있었다. 오목이는 자신이 스스로한 순종의 맹세를 벌써 잊어선 안된다고 다짐하며 조그맣게 말했다.

『생각나요. 그렇지만 그것하고 이것하곤 다르잖아요. 결혼했단 표시로 사진한장쯤은 남기고 싶어요』

『계집애들이란 그저. 고아원에서도 사진찍기 좋아하는건 맨 계집애들 뿐이었지. 사내녀석중에서도 계집애 같이 생긴 녀석이거나. 그렇지만 난 아냐. 난 어릴적부터도 귀여운 얼굴이 아니어서 그런 사진의 주인공을 시켜주지도 않았지만 하고싶어 얼씬대지도 않았어. 그렇게 찍은 사진이 우리들한테 한번이라도 돌아온적이 있다던? 손님 오는날 복도에 전시되거나 아니면 분유 몇통 과자 몇박스 가지고 와서 우리 머리를 쓰다듬고간 자선가들이 그사진을 최대한으로이용했겠지. 우리한테 되로 주고 딴데 가서 말로 받기 위한 장삿속으로 그중 잘된 사진은 아마 세계 각국으로 돌았을 거야. 세계아동구호기구에서 더 많은원조를 얻어 내서 원장의 배를 불리기 위해. 자선가들이 왜 그렇게 사진을 좋아하는지 이제 좀 알겠어? 이 맹꽁이』

『그래 난 맹꽁이야. 사진을 안찍어도 좋지만 난 오빠의 그런생각이 싫어. 무서워』

오목이가 순종의 맹세를저버리고 가냘프게 대들었다.

다방속은 사람들이 쉴새없이 들어가고 나가고했다. 손님들의 옷차림도 인재와 만난 시내중심가의 정결하고 고상한 다방손님과 달랐다. 아무도 우두커니 앉아있거나 눈감고 명상에잠겨있거나 쌈쌈이 나직하고 그윽하게 속삭이거나 하지않았다. 음악없이 사람들의 목소리만으로도 시끌시끌했고 도대체 눈치라곤없이 거칠고 우락부락했고 목청들이 컸다.

그러고보니 손님중에 여자라곤 오목이 한사람 뿐이었다. 오목이는 별게 다 서러워서 눈물이 그렁해졌다.

고아끼리 가족이 되고 또 새로운 가족을 만들기란 쉬운 노릇이 아닐거란 제법 염리한 생각이 그녀의 서러운 마음을 비집고 들어오려고했다.

『그럼 사진은 그만두더라도 어서 나가요. 해안에할 일이 얼마나 많다구』

그러면서 먼저 일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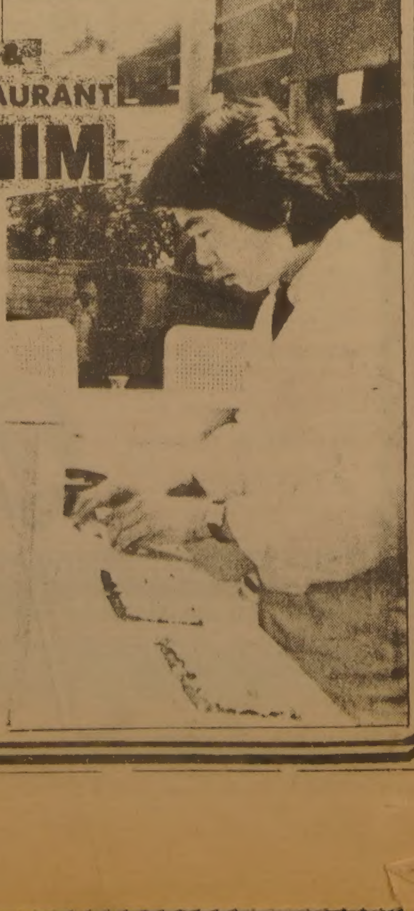
그녀가 가는대로 그는 졸레졸레 따라만 다녔다. 그녀는 동대문시장쪽으로 앞장섰다. 우선 그릇과 숟가락을 샀다. 그녀가 돈을 내려고 할적마다 그가 얼른 먼저 내고 짐을 받아들었다. 그녀가 물건값을 깎느라고 시간이 오래 걸리면 그는 약간 창피한듯 비켜서서 딴전을 피다가도흥정만 다 되면 기회를 놓칠세라 달려들어 돈을 치러 주었다.

화해를 청하는 말도 위로하는 말도 없었지만 그 정도로 오목이의 섭섭한 마음은 스르르 풀려있었다.생전 처음 내 살림을 장만해서 보기에도 미더운 남군에게 드리는 재미에 하마터면 안하던 남비까지 할뻔하면서 이게행복이라는 건가?하는 짜릿짜릿한 즐거움을 맛보고 있었다.

줄이고 줄여서 최소한으로 장만하느라고 했는데도 잠깐동안 장만한 살림살이가 일환이의 양손에서 넘쳤다. 그는 이불가게엔 숫제 따라들어오지도 못해고 밖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며 짐을 보느라 멋쩍게 서있었다.

한국·일본음식 전문점

호 심



제일 큰 고층빌딩내「호심」에서 한번 시식하십시오. 맛있는 한식과 일식을 토론토에서…

놀랄만한
저렴한 음식 가격!

*예:	불고기	$4.95
	튀김만두	3.95
	비빔밥	4.50
	스 시	3.75~9.95
	기 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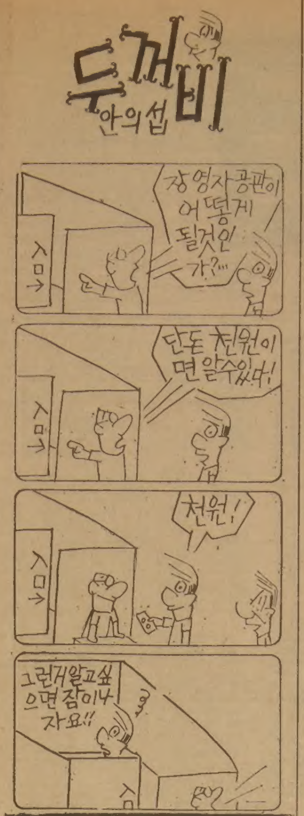
* 새로 쓰시바 신설
* FAST TAKE OUT SERVICE
* 단체도시락 주문에 응합니다.
* 단체연회 특별봉사
* 주문 환영합니다.

주류판매 개시
NOW FULLY 술LICENCED

영업시간
월요일~금요일
오전11시~오후10시
※토요일은 예약시에 엽니다

—저녁6시 이후에는 도로변 주차 가능.
—저렴한 파킹장 : 평일 오후6시이후 Flat $1.50,
토요일 Flat $1.50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P. O. BOX 329 (100 King st. at Bay) ☎ : 368—0686



비타민·한약
미도파백화점
454 BLOOR ST.W B536-1692 H245-3539

12일께 全國에 단비

氣象臺예보 가뭄解消 도움…무더위 계속

7일은 소서(小暑)。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다는 소서와함께 오랜만에단비소식이 전해졌다。

중앙기상대는 오는 12일께 기압골이 통과하면서 전국적으로 비가 내린다고예보, 오랜가뭄을 해갈하는데 도움이 될것같다。

한편장마전선은 형성이 늦어져 오는15일께나 상륙하겠으며 12일까지는 북태평양고기압이 우리나라 중부일원에 자리잡고있어무더위가전국적으로계속되겠다고전망했다。

또 우리나라는 남부지방과 濟州지방이 느린속도로 북상중인 장마전선의 간접영향권에 들어 비가오는 12일까지는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약간의 비가 오겠으며 중부지방은 가끔흐리고 곳에따라소나기가 오면서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이다。

전북 七寶발전소 水位낮아 稼動중단

【全州】계속된가뭄으로 섬진제의 수위가 크게 떨어지면서 전북井邑郡 七寶수력발전소가 발전을 중단했다。

7일 한전全州지사에 따르면 시간당 1만2천5백㎾의 출력을 보유하고있는 七寶발전소가 지난달27일 1호기의 발전을 중단한데 이어 2호기도 7일 발전을 중단했다는것。

七寶발전소의 발전중단 원인은 이수력발전소의 수원인 섬진제의 수위가 발전가능최저수위인 1백68m35cm보다 57cm가 낮은 1백67m78cm로 떨어져 발전이 불가능하기때문이다。【聯】

警察가스銃 맞고 절도피의자 숨져

7일 상오5시40분께 경기安養市安養5洞597 최영식씨(43)집 앞에서 절도피의자 徐廷讚씨(44·전과7범·충북清州市内德洞764의2)가 清州西部경찰서 소속 李哲雨경사등이 쏜 가스총을 맞고 실신, 安養병원으로 옮겼으나 1시간만인 상오 6시45분께 숨졌다。

숨진 徐씨는 지난 2일 충북清原郡芙蓉面 文谷里2區 李영우씨(26)집에서 2년생 황소 2마리(싯가 2백40만원)를 훔친 혐의로 경찰이 수배중이었다。

경찰은 이날 崔씨집 주변에서 잠복, 밖에서 자고 들어오던 徐씨를 덮쳤는데 고함소리를 들은 공범 崔씨가 뛰어나와 합세, 반항하는 바람에 가스총을 발사한것。

경찰은 이들을 충북1가3718호 포니승용차에 태워 清州로 호송하던중 徐씨가 차속에서『눈이 아프다』고 말했고 4㎞가량 갔을 때 땀을 흘리며 호흡곤란까지 일으켜 공범 崔씨를 安養경찰서보호실에 인계하고 곧바로 安養병원으로 옮겨 인공호흡과 강심제를 주사했으나 5분뒤 숨졌다는 것。

外貨유출사실등 是認

李·張어음사건 첫公判 피고인7명 檢察·辯護人 신문마쳐

"처음부터 詐欺할의도는 없었고 2倍어음 身分과시한것 아니다"

韓·中東합작은행 설립자금 마련위해 오일달러를들여오면 經濟도움 생각

李哲熙·張玲子씨부부 거액어음사건 첫공판이 7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합의11부(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주심李玲愛·배석張容國판사) 심리로 열려 李·張부부와 大和산업간부등 7명에대한 검찰신문과 변호인 반대신문을 들었다。이날 공판은 공소장 낭독을 생략하고 인정신문에이어 곧 바로 사실심리에 들어갔다。

◇尹錫鎔피고인(大和이사)

◇金濟振피고인(大和사장)

◇金正一피고인(大和경리부차장)

◇金勇男피고인(大和비서실차장)

이날 검찰의 직접신문은李·張부부의 외환관리법위반혐의 부분부터 시작, 어음과사기부분, 李·張부부와 大和산업간부들의 업무상배임부분순으로 진행됐고 이어 변호인 반대신문, 검찰보충신문순으로 계속됐다。

이날 법정에는 李·張부부와 金濟振(53·大和산업 사장)、尹錫鎔(35·大和산업 慶州유드호스텔관리부장겸이사)、金正一(38·大和산업 경리부차장)、金勇男(38·大和산업비서실차장)、徐香蓮(55·여관업·불구속)등 7명의 피고인이 출정했으며 검찰에서 成敏慶부장검사·李明載·金相喜검사등 3명이 간여했고 출정피고인들의 변호인인 文相翼·張秉哲·金昌國·鄭鍾均·徐建翔·李在權씨등 6명의 변호사가 나왔다。

이날 공판에서 李·張부부는 미국에 미화60만3천달러 일본에 일화 5백만엔을 도피시키고 淸潭洞자택에 미화40만달러와 일화 8백만엔을 은닉한 외환관리법위반부분에 대해서는 검찰공소사실을 전부시인했으나 어음사기부분에 대해서는『처음부터 사기할의도가있었던것은 아니었다』고 완강히 부인했다。

그러나 李·張부부는『결과적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누를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어떠한 벌이라도 달게받겠으며 일생을 바쳐 속죄하겠다』고 진술했다。

李·張부부는▲共榮·日新등 관련기업에서 빌려준돈의 2배수이상어음을 받아낸때 대여액초과부분어음도 활용하겠다는것을 기업관계자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했고▲초과어음은 보관만하겠다고 약속한적도없으며▲특수자금운운하거나 신분을 과시해2배수어음을 받아낸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李피고인은 자신이 평소구상하고있던 전자기계산업 한·중동합작은행 설립자금을 마련하기위해 돈이필요한 기업에 돈을빌려주고 2배수어음을받아 시중에서 할인、자금을 동원한후 주식투자를해 사업자금을 마련하려고 했다고진술했다。

李·張부부는 관련기업에는 연리20~22%2년거치2년분할상환의 저리 장기로대여해주고 기업에서 받은 어음은 고리단기로 사채시장에서 할인해 사용하면 결국 역금리체계로 손해만보는 무모한발상이 아니냐는 검찰질문에대해서는『어음할인으로 2천억이상만 동원하면 증권가에서 소위 큰손으로 활약하며 큰물의없이 성공해 이자차액을 메우고도 사업자금을 마련할수 있을것으로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李·張부부는 저리대여, 고리할인이 계속되면 부분적 단기적으로는 어음결제가 가능하나 전체적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하며 파국에 직면했을것이라는 검찰의 추궁에는『그것은 미지수다』고 얼버무렸다。

이들부부는 또 주식투자에서는 계속해서 1백%성공해야만 어음결제가 가능했을터인데 지난해 여름부터는 이미 주식선매로 큰손해를보기 시작했고 금년4월께는 이미 결제해야할 어음액이 2천억에 달했는데 결제할수있었느냐는 검찰의추궁에 역시『미지수다』고만 답변했다。

이들부부는 또 관련기업에서 어음을 미리받아 사채시장에서 할인한자금으로 일부를 어음발행기업에 빌려주거나 이미 받은어음을 다른기업에 담보로 제공하고 또다른어음을 받아낸것등은 시인했다。

그러나 이들은 모든초과어음부분에 대해서는 일부는사채시장에서 활용해쓰고 일부는 은행이나 거래기업에 담보로 제공하는등 사용할것이라는것을 기업간부들이 모두 알고있었으며 자신들이 어음결제를책임지고해왔고 부도를낸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張피고인은 또 정치자금으로 유입된돈이 있느냐는 검찰신문에대해『전여없다』고 부인했고 자기신분을 과시한적도 없다고 진술했다。

李·張부부는 어음거래가 어려움을 겪게돼 자금사정이좋지않아진것은 지난해 10월말께부터였으며 당시 주식투기의 큰손으로 지목돼 수사기관에서 거래선에대한 조사가 있은후부터 신용도가 떨어진것이라고 진술했다。

하오에속개된공판에서 李·張부부는 거래기업관계자들이『초과분을 보관만 하겠다』고해놓고 활용해쓴것』이라고 검찰에서 주장한것은 어떻게 된것이냐는 변호인 반대신문에 대해『검찰담보라는 말도 조사과정에서 처음 알았으며 관련기업에서 보관만할것이라면 왜 소액권어음으로 수백매씩 발행했겠느냐』고 반문하기도했다。

이들은 또 2배수어음발행이 이례적이 아니냐는 변호인신문에 대해서도『그렇지 않으며 돈을 급히 쓰고 싶은 기업은 갖다쓰고 우리는 초과어음을 할인해 자금을 동원하고 어음결제도 우리가 하기로한것이 때문에 서로 협조관계다』고 주장했다。

이들부부는 또 변호인 반대신문에서▲해외도피를 기도한적도없고▲자금사정이 안좋은 기업을 탈지한적도없고▲자기부부의 최초자금이 검찰공소사실대로 20억원이 아니고 3백억원이었다고 주장하기도했다。

한편 李·張부부및 大和산업간부들은 大和산업 공동대표이사이며 慶州유드호스텔 사장인 金濟振씨명의로 액면총액1천13억원의 어음을발행 大和산업에 손해를끼쳤다는 업무상배임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시인했다。

재판부가 이날 사업구상은 누가했느냐고묻자李피고인은『본인이했다』고 답변했고 張피고인은『남편과 상의해서했다』고 답변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신문을 끝으로 하오5시40분 폐정했다。

◇許正勳부장판사와 李玲愛㊧張容國㊨두배석판사가 입정하고있다。

다음公判은 10일

다음公判은 10일상오10시에 열려 共榮토건및 日新제강 관계자와 孔德鍾 전상업은행장등이 출정한가운데사실심리가있게된다。

수배 私債업자 金永哲씨 검거

대검중앙수사부는 7일 張玲子여인의 어음을 할인해준 혐의로 수배중이던 사채업자 金永哲씨(36·서울江南區鶴洞산51)를 검거, 단기금융업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李哲熙선두로 入廷

○…이날 법정에는 상오10시정각 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를 선두로 李玲愛판사、張容國판사가 차례로 입정했고 곧이어 李哲熙피고인을 선두로 張玲子 金濟振등 순서로 입정했으며 불구속상태인 徐香蓮피고인은 회색 투피스사복차림으로 방청석에 앉아있다가 피고인석맨뒤로 옮겨앉았다。

호송버스 창문가려

○…李哲熙·張玲子등 6명의 피고인들을 태운 서울5가5089호 호송버스는 이날 다른 호송버스와는 달리 창문을 완전히 가린채 9시30분정각 법정에 도착했는데 교도관들은 보도진과 방청객들의 접근을 차단하면서 구치감을 통하지않고 대법정피고인대기실로 곧장 들여보냈다。

○…한편 李·張부부의 변호인인 文相翼변호사등 변호인 6명이 상오9시50분입장한데이어 법복을 입은 成敏慶부장검사등 검사3명이 입정했다。

○…재판부는 李哲熙·張玲子부부사건의 공판일정을①李張부부와 大和산업관계자 ②공영토건및 일신제강 관계자、孔德鍾전상업은행장 ③林在璘피고인등 전조흥은행관계자및 사채업자 ④李圭光씨를 비롯한 나머지 피고인등 순으로 나눠 진행시킬 예정이다。

가급적 빨리끝낸다

○…李·張사건 재판부는가급적 빨리 재판을 끝낼 생각이다。

이사건 재판장 許正勳부장판사는 7일『8월말에도 법관 정례인사가 있을예정이고 따라서 재판부 구성원이 바뀔것이 예상되기때문에 그전에 재판을 끝내겠다』고 말했다。

許부장판사는 이달중에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인 10 14 21 24 28 31일(17일은 제헌절) 모두 7차례에 걸친 공판을 열면 7월안에 결심을 할수있을 것이고 8월중순께는 선고가 가능할것이라고 말했다。

李哲熙 초췌한 모습 張여인 고개 꼿꼿이

李哲熙진술때 꼬집어 말리기도

말끝마다"죄송"

○…張여인은 마이크앞에 설때마다 거의90도가깝게 재판장에게 인사를했고 답변도중에는 시종『죄송합니다』『속죄합니다』『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읍니다』『벌을 달게받겠다』는 말을 되풀이 했다。또 李씨는『집사람』、張여인은「본남편 李哲熙씨」라고 호칭을 했다。

張여인은 남편李씨에 대해『관료적인 사람이어서 사람을 잘모른다』『경제를 모르는 사람』이라며『남편을 지금도 존경하고 앞으로도 존경할것이며 속죄를 받을수있다면 살신보은 하고싶다』고 말하기도했다。

○…張여인은 李씨가 외환관리법위반부분신문도중『일화5백만엔을 일본 후지은행에 입금시켜준 스즈끼·나오시씨를 어떻게아느냐』『미화를 은폐시켜둔 이유가뭐냐』는 질문에 대답하려는李씨를 의자에앉은채 2차례나 꼬집어 재판장으로부터『피고인은 정중하게있으라』는 주의를 받기도했다。

나는 평범한아녀자

○…張여인은 李씨의 한·중동은행설립 구상에대해 비동맹국가의 오일달러를 들여오면 한국경제에도 큰도움이 되며 안보적차원에서도 좋고 UN에서의 국가적 위치에도 도움이될 것으로 생각, 전폭적으로 찬성했다고 설명하기도。

○…張여인은 또『자신의 신분을 과시한일이 있느냐』는 질문에는『나는 李哲熙씨의 평범한 아녀자일뿐』이라며 부인했다。

李·張 가족이보낸옷 거부 푸른囚衣 입은채 法廷에

○…李·張부부와 金勇男피고인은푸른수의차림이었고나머지 3명은 가족들이 넣어준 흰색 상의와 회색한복바지를 입고 있었다。

교도관들은 李·張부부가 차입해준 옷을 마다하고 구치소에서 지급한 수의를 입을 것을 고집했다고 전했다。

李피고인은 머리를 짧게깎았으나 무척 지친표정이었고 입장하면서 재판장을향해 공손히 머리를숙여 인사했다。

반면 張피고인은 구속당시와 큰변화가없이 건강한모습이었고 얼굴을 꼿꼿이 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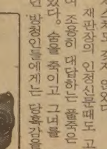
국민에 고통줘미안

○…하오공판에서張여인은 文相翼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끝내면서『현재의 심정이 어떠냐』고 묻자 북바쳐오르는 감정을 억누르지못해 손으로 입을막고 한동안 대답을못하자『여러사람에게 피해를 입힌데대해 뉘우치고 있느냐』고 재차묻자『모든일이 본인의잘못이며 이를 통렬이뉘우치고있고 부하직원들에게 까지 고통을안겨준데대해 평생을두고 속죄하겠다』며 한동안 흐느껴울었다。

張여인은 또 金濟振피고인에대한 변호인의 신문에서『金피고인이 공모한일이 없다는것을 시인하느냐』는 물음에『말이사장이지 사실은 慶州유드호스텔의 운영자였을뿐이며 아무죄도없다』면서 다시 흐느껴울었다。

法廷에 선「큰손」 자칭"經濟人" 張玲子여인

「經濟理論」도 술술… 大膽性 보여



「손이 큰 여자」도 역시「女子」임에는 틀림 없었다。구치소 버스에서 내리는 張玲子피고인(38)의 얼굴은 핼쑥했고 푸른수의와 수갑찬 손이 풍기는 분위기는 여느여자잡범과 다를바가 없었다。말하자면 女王처럼 군림했다던 그 위엄있고 우아한 미소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버스에서 내려 2m앞 법정문앞까지 걸어가면서 주위를둘러볼 여유도 없었고 하늘을 일별 해보는 제스처도 갖지 않았다。

재판장의 인정신문때도 고개를숙여 조용히 대답하는 풀죽은 모습이었다。숨을 죽이고 그녀를 지켜보던 방청인들에게는 당혹감을 주는「變身」이었다。

그러나 그녀는「간단한인물」이 아니라는 사실을 잠시후부터 보여주기 시작했다。검찰직접신문에서 그녀는 말끝마다『죄송하게 됐다。어떠한 처벌도 달게 받겠다』는 말을 후렴처럼 붙이고 있었다。

공판정의 경험측은「정말 후회하는자는 변소하는 말이 적은법」이라 했다는데…。

검찰신문이 구체화되면서 자그맣던 그녀의 음성은 점점 커지고있었다。자신을 자연스럽게「경제인」이라고 불렀으며 낭랑한 목소리로 경제이론까지펴다가 검사의 주의를받기도했다。그녀는『日新제강은 적자손실액이 7백억원인 긴박한회사』『라이프주택은 건실한 기업이못된다』『共榮토건은 어려울때 도와주면 클수있는 기업』이라는등 굵지의 기업체에 대한 촌평을 기업체전문의가 환자진단하듯 명쾌하게 내리고 있었다。입정할때의「모습」에 놀랐던 방청인들은 잠시후에 표변한 그당당한 분위기에 또다시 놀랄수밖에 없었다。

『담보용어음을 왜 마음대로 유통시켰는가』고 검사가 날카롭게 목소리를 돋우자 그녀는『경제는 유통이다。머물러있는 경제는 있을수 없다。어음을 썩여둘 경제인이 어디 있는가』고 반문한뒤 경제를 전쟁에 비유, 전쟁에 임하는 지휘관이 패전하고 싶지 않은것처럼 경제인은 사업에 실패할수 없으며…실패한이상「경제인」으로서 절실한 책임을 느낀다고 거침없이 경제이론을 펴기도 했다。

「정치자금 유입설」에 대해서도 그녀는『정치권력과 결탁하면 기업은 뿌리가 없으며 나는 권력자만보면 달아난다。나의 철학에는「정치결탁」이란 낱말이 없다』고 진술했다。

정말「명쾌한 대답」이었다。

그녀의 주장이 진짜「실체의 진실」인지를 이제 공판결과에서 지켜보자。【裵琪哲기자】

보십시오
새머리털이 자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머리털의 성장 실험결과가 우리 전문가들에 의해 85% 이상 성공했읍니다.

당신의 머리털이 빠짐을 막고, 새 머리털의 성장주기를 자극 해주는 최근의 신비가 임상실험실에 있읍니다. 우리의 훈련된 머리털 전문가가 당신의 머리털과 머리 가죽을 분석해서 문제점을 해결합니다.

일차 상담해 주십시요.
걱정을 해결합니다.

People's Hair and Scalp Specialists
BLOOR & DUNDAS MEDICAL CENTRE
2333 DUNDAS ST. W. SUITE 305
☎ : 537-3104

Everybody's talking about WAGNER..
BECAUSE OF THE SOUND THE QUALITY AND THE VALUE

WAGNER PIANO는
*품질의 높음이 세계적으로 알려져 구라파와 미국은 물론 카나다에서 수많은 음악전문가들의 호평을 받고 있으며
*카나다의 최우수 대학인 몬트리올의 McGill University 음악대학, University of Alberta 음악대학, Humber College 음악과 등에는 이미 Wagner Piano를 다량 애용중이며,
*상당수의 U of T음악교수들, 카나디안음악인들, 토론토한인음악인들이 Wagner Piano를 소유하고 있읍니다.
*Wagner Grand Piano는 카나다 전체 Grand Piano 판매량의30%를차지하고 있으며, 해마다 증가일로에 있읍니다.
*Wagner Piano는 12년간 본사에서 품질을 보증합니다.
*Clear and Precise Sound, Uncompromised Quality and Unbelievable Price는 Wagner의 자랑입니다.

WAGNER HOUSE OF MUSIC
JASTOM TRADING COMPANY LIMITED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ARIO M3B 1Z3
☎ (B) 445-1516, 449-8644 (H) 286-1548 대표 박 성 희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의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탁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 363-6077
Mrs. 전

KIM'S ART GALLERY Pictare Frame Warehouse
◉각종 유화·서양화
◉사진액자 전문으로 취급
◉동양화·초상화
1286 Weston Rd.
(에그링톤×웨스톤)
(B)243-0233 (R)651-2261 김 석환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트로피·감사패 전문
Golen Craft
◉특수인쇄(Silke Screen Printing)
◉Engrauing
◉간판 취급
(나무·유리·의류·프라스틱등 특수인쇄 전문)
1700 Wilson Ave.
(B)247-8870 (R)242-4319 김 국일

운동구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전영

MUNAMI TROPHY & SPORT
영업시간 : 월~금: 10a.m.~8p.m. 토: 10a.m.~6p.m.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귀금속수리

M & J JEWELLERY REPAIR 시계및 귀금속 수리
1530 Albion Rd. Rexdale (Kipling × Albion)
전화 : 742-1205(B), 745-1632(R) Mr. 마

광고문의
☎ : 533-2361

시설및수리

"가게및 집수리 일체"
시설및 수리 (상하수도, 전기제품, 페인팅)
성심 성의껏 봉사해드리겠읍니다.
전화 : 425-8585 Mr. 김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전화: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T. V. 출장 수리
전화: 431-0102 미스타 박

목수일 합니다.
◉제네랄·콘트랙터 면허취득 ◉각종건축수리및 신축상담
전화 : 249-0003 Mr. 최

식당

CHOI'S RESTAURANT
메뉴: 초밥, 튀김덮밥, 모밀국수, 갈비, 불고기,
덴뿌라, 스끼야끼, 기타 ◉일요일 휴업
시간: 주중:낮12-밤12시까지, 목금: 낮12-밤1시까지
토: 낮4시30분-밤11시반
주소: 2432 Eglinton Av. E. Scarboro (at Kennedy)
전화: 759-8512 최 영 호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서 울 하 우 스
615 BLOOR ST. W.
전화: 532-0602

Rose Garden (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일류요리사, 홍콩식 중국요리 취급
전화 : 656-0456, 654-6609 유 창균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식품점

삼복식품. (주7일 영업)
금요일 밤12시까지, 일요일 오후4시~오후10시까지
제일좋은 물건만을 골라, 제일 싼값으로 책임있게
봉사합니다. 여름철 야외 바베큐는 맛있고, 살많은
삼복갈비를 이용하세요. 시내어디든지 무료 배달합니다.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한 밭 식 품
◉ 미시사가지역 교민들께 편리.
◉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 일요일은 오후 4시~8시까지 OPEN
466 SOUTH SERVICE RD. MISSI.
전화: 274-5401

제 일 식 품(구 단풍식품)
7 Days Open(오전10시~오후10시까지)
배달합니다
뒤에 파킹 LOT 마련.
전화: 532-1054 (아리랑식당 옆)

고 려 식 품 680 Bloor St. W. Tor.
주 7일영업(오전10시~오후11시까지)
배달가능, 각종서적및 월간잡지 전화:531-2242

서 울 식 품 ◉ 친절한 써비스, ◉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291-8317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악기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전화 : 222-4662 김 수 웅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장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 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 530-1870
오전 11시~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의류수선

의류수선, 패턴양재, 주문배수
전화 : 530-1046 10a.m.~5p.m 368-7258 6p.m 이후

의류수선 (남녀분 양복·양장 다 취급함)
의자 카바, Zipper 수리등 성의껏 해드립니다.
전화 문의도 환영합니다. 전화 : 669-5784 (Mrs. Kim)

액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광고문의 ☎ : 533-2361

에어콘 히팅 냉장고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532-2880, 2889(B) 493-9945(R) 김 봉 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 24 HOUR SERVICE —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여행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
(김종조 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복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 366-0960(B) 임 태 호

운전학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69-1960(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
스카보로 지역은 집에서 데려가고 집에까지 데려다 줍니다. 16년간의 경험으로서 특히 신경예민하신 분들과 연세 많으신분들께 성심 성의껏 지도해드립니다. 한번 수업에 Parking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배우실수 있으며 전문가로부터 운전에 관한 모든 필요한 지식을 배우시게 됩니다.
Call Ask Vlado, 291-8304 (오후 4:00-밤 11:00)

이삿짐운송

나 라 운 수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물러
전화 : 630-6602

인벤토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2) 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 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 (공휴일 무관)
전화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인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대표 : 이 인 용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 789-7351, 789-7352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LEE'S 프린팅
최고의 품질, 저렴한 가격
2157A WESTON RD. WESTON 전화 : 244-2301

크로바인쇄소
3351 Lakeshore Blvd. W.
전화 : 251-9587(B) 252-7491(R) 위 정 남

자수(수예)

미싱자수 커버, 누비 커버, 꽃수, 명찰, 마크
주문및 판매 (언제든지 전화문의 환영)
700 Wilson Ave. Downsview 전화: 635-7154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신 용 태

O. K. AUTO BODY
자동차 사고 전문
138 SIXTEENTH ST. (New Toronto,)
전화: (B) 251-9889, (R) 242-4551 김 희 삼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Lisbon Auto Collision Inc.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견적 ★수리중차 대여
★완전한 차체수리 ★교포특별대우
★Rust Proofing.
전화 : 533-8507, 533-8508 이연두·이건학

귀 사업체는—.
어디에서 무엇하는 곳입니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안내해 드립니다.
☎ : 533-2361

장의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카펫·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카페트·소파·췌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 박

태권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1963 WESTON RD. (1층)
전화 : 247-7577 (웨스톤 × 로렌스) 로브로앞

정영수 태권도장
1065 St. Clair Ave. W.
전화 : 652-0000 사범 : 정 영 수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 사범 직접책임지도
중앙도장 : 2281 YONGE ST. 전화 : 483-4002
동부도장 : 1865 LAWRENCE AVE. E. 전화: 759-2500

T·V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SAY CHARGE IT!
WE HONOR
master charge
오시지않고
광고를 내시는
편리한 방법이지요.
533-2361
한국일보사 광고국

한방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각종 디스토마 특효약 입하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정확한 진단과 처방
한약으로 암환자를 치료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전화 : (B)536-6854, (R)531-7505 시 춘봉

자연요법 및 지압치료. 왕진도 함(심 하섭)
요통(허리아프신 분), 두통·복통·류마치스·불면증
643A Bloor St.W.(신용조합옆)(B)536-6854 (R)635-8744

보 광 한 약 방
30여년의 (부산) 임상경험을 토대로 교민여러분의 건강관리에 미력하나마 이바지하기 위해 친근한 상담역이 되고자 하오니 한약및 침구에 대한 격의 없는 상담을 바랍니다.
주소 : 92 Brantwood Drive (스카보로 제너랄병원근처)
전화 : 439-6717 김 남 집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전화 : 530-0522 531-4165(R)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화 랑

U.C.Painting Studio
미술 개인지도, 유화·수채화·뎃상
전화 : 530-4991

회계사무소

YOUNG C. LEE M.B.A.R.I.A. "METRO WIDE"
ACCOUNTING & TAX SERVICES
8년간의 캐나다 회계및 세금조정, 현 CA Office근무중
BOOKKEEPING & ACCOUNTING
MANAGEMENT CONSULTING, INCOME TAX PREPARATION
전화 : 239-6802 이 영 철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 A BLOOR W. 전화 : 533-7573(B)

신명숙 회계사무소
484 BLOOR ST. W. TOR.
전화: 537-3171(B), 669-2710(R)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영업시간: 월~토 : 오전10시에서
저녁 8시까지
645 Bloor St. W.
전화 : 531-4165(R), 530-0522(B).
조 지섭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인

Full Time Sales Person

캐나다에서 고등학교 이상을 졸업한 분으로 용모단정하고 영어회화에 능통한 Sales Oriented된 분을환영함. (관심있으신분 직접 문의)

고려보석
Eaton Centre

가게 맡아서 운영하실 분 구함(Gift Shop)
(Bathurst 와 Duffrin 중간지점) 776 St.Clair Ave. W
11시에서 4시 사이에 직접내방 바람.

Donut Shop Manager구함.
직접 내방 바람.
1485 Gerrald St. E(& Coxwell)

Driver & Salesperson 구함.
★ Commission basis.
토론토에 있는 각 Variety Store에 Juice 판매하실 분.
약간의 영어 요구됨. 운전면허 있어야함. 트럭은 제공받음.
돈벌기에 전망이 밝은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전화 : 482-4807

스토아 매니저 구함.
오타와 지구. 약간의 보증금 필요.
스토아 매매도 가능함. 전화 : 624-5817

Becker Store Manager 구함.
당분간 맡아서 보아주실분(경험자 우대)
전화 : 924-7696 (Mr. Lee)

Part Time 남자헬퍼 구함.
(Richmondhill 지역) 전화: 884-5433

아이스크림 가게 Helper 구함 (유경험자)
Franchise도 가능함. 전화 : 752-4366 Mr. 박

무엇을 찾으십니까?
한국안내광고란을 찾아 보십시요.
광고문의
☎ : 533-2361

하숙

Room & Board (New Markham, Finch, Scarboro지역)
독방과 식사제공 (1일 1식, 토·일요일은 2식)
연락처: 6시 이후 전화: 425-6068 Mr. Lee 월·수요일은 제외

구혼

결혼상담, 직업소개, 전자침 (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 (18부터60세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캐나다 영주권 소지자로서 (결혼 실패한 남·녀)
한국에 있는 성실한 사람을 배우자로 원하시는 분은 자기 소개서, 사진을 동봉하여 서울 주소로 연락바람.
주소 : 서울 관악구 신림본동 409-9 전화: 878-9907 김만수
(2명이상 선정해서) 꼭 회답하여 줄것임.
(수수료 무료)

개인지도

첼로 개인지도(레스리×휜치)
전화 : 492-7472 (Mrs. 연)

도자기 공예를 전공하실분 개인지도함
전화 : 233-9534 정 동 훈

기관및단체

총영사관	598-4608
한인회	755-9288
노년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 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무역진흥공사	977-8784
동우회	261-2917
캐나다체육회	533-933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매매

사진 식자기 급매 (SAKEN SPICA-K)
교회 또는 인쇄소에 적당.
문의처 : 한국일보사
전화 : 533-2364 Mrs. 김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Hwy 10 × 던다스, 주 6일 매상 : $4,300
비데오머신 월 최저 $1,000 보장
(일요일 영업하던 가게였음)
리스 2년+5년, 렌트 $750, 가격 $5만+스탁(현금)
전화 : 276-3266

Variety Store 매매(Short Hours) 건강상 이유로 팔고자함
주매상 : $4,000, 렌트: $500(m.) 리스: 5+5
아스킹: $39,000+스탁. 전화 : 636-1697

"Fast Food"
1. 도너스 & 써브머린. 주매상 : $8,000
2. Hamburger drive-in. 주매상 : $8,000
3. 식당 (Tavern & Banquet) 주매상 : $10,000
4. 식당 (Tavern), 주매상 : $6,000 중국음식점으로 개조도 가능.
5. Dry Cleaners Pick Up 주매상 : $500
Jim Sklavos
Pan-National Real Estate Ltd.
Phone: 461-1114

Variety Store for Sale(Georgetown, Ont)
주매상 : $6,500. Open한지 3개월 되었음.
경쟁없는 가게. 넓이 : 2,000s.f. 렌트 : $1,300(M.)
185 Mountainview Rd. N.
관심있으신 분 내방 바람. 1-873-1377

Mall안에 있는 성업중인 Ice Cream Store (Hotdog·Donut·Sandwich) 토요일 : Half Day. 일요일 : Close
1184 Weston Rd.(Eglinton & Weston) 관심있으신 분 내방 바람.

식당 & 타번(Tavern) 매매
가격 : $55 000. 좌석 : 40
스카보로 지역. 전화 : 266-5990 (크리스).

Grocery Store — Private Franchise
Stock downpayment. S.W. of Toronto.
Best Offer. Phone: 259-2123 (이자예브)

성업중인 Variety Store for Sale
가정사정으로 급매. 저렴한 가격으로 양도하겠음.
주매상: $3,000 렌트: $300(M) 전화: 259-0323

---

(1)New Franchise Ice Cream & Sandwich Bar.
도미니언과 씸슨 사이에 있는 커다란 Mall안에 있음.
Lease : 10년. Mortgage : $75,000. 12%. 5years.
(2)New Franchise. Hamburger(young & Dundas)
주매상 : $9,000. Lease : 20년. 다운페이: $100,000
Patrick Ho. R.E.
Call Goe Sham
전화 : 593-8967

Variety Store 매매 (Building & Business)
(3 Bed Rm Apt. + 2 Bed Rm Apt.) 포함.
주매상: $7,500이상, 아스킹: $185,000 전화: 1-898-4326 (Mr.신)

Grocery Store for Sale
주매상 : $4,300~$4,800. 아스킹 : $26,000. Good Lease
Near Niagara Fall 전화 : 266-5895 (Mr. Kim)

Baskin & Robbins Ice Cream Store 매매
Franchise임. 리스 : 10년
전화 : 241-9593

Smoke Shop for Sale
년매상 : $325,000 (Eglinton & Caledonia)
전화 : 635-8405 (Vitale)

Variety Corner Store for Sale
이층 살림집 포함. 주매상 : $4,000
전화 : (1)-529-0018 Mr. Kim (Hamilton)

큰 Shopping Centre안.
년 11만불 보장. 순이익 절반. 렌트: $650. 리스 갱신 가능.

영업시간: 월-수: 9시30-6시, 목-금,토 9시30-5시,
요구액: 3만불 + 스탁
연락처 : Montreal(514)-691-3704, 691-4751

Variety Store 매매. 주매상 : $3,000-$3,300
전화 : 699-4804

Variety Store for Sale.(Bloor & Christie)
주매상 : $4,000이상. Good Lease.
Tom. 534-7785 Cosmos Realty Co., Ltd.

Variety Store 급매.
또는 Management하실분 구함. 주매상 : $3,500
리스: 15년 전화 : 651-1577, 656-5358

Air Conditioner 급매. General Electric.
8,000 B.T.U. 2주 사용했던것 임.
$265. 전화 : 431-6882 (Mrs. Kim)

크레딧·카드를
使用 하세요.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도서판매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룸메이트

Room Mate 구함. (Finch & Weston)
2 Bed Room Apt 같이 나눠 쓰실분.
고층 Apt. 전화 : 222-3877 (Miss Kim)

아파트렌트

3 Bed Room. (M/$470).
7월말경 입주 가능 (Lawrence×Caledornia)
전화 : 651-4431

재미있는 주간여성
식품점서 판매중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석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훈모부동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
(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전화 : (B) 449-8644~5, (R) 286-1548

ROYAL TRUST (유 복 영)
전화 : 762-8255 West 지역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SINCERE REALTY INC. (채 준성: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차매매

GRANT BROWN
1575 Weston Rd.
전화 : 247-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분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간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각종간판. Silk Screen)
133 Manville Rd.
전화 : 755-9087 이 종소

가구점

ECOSYS FURNITURE
2300 YONGE ST.
전화 : 486-0397 김 만 구

LEON'S 가구·카페트·전자제품
20 McLevin Ave(세파드×마캄)
전화 : (B) 291-3818, (R) 749-9687, 746-0981 홍석렬

꽃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751-5851(B) 757-6711(R)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 (JANE PARK PLAZA안)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 B) 769-0609 R) 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 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메리야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스
Weston Mall (웨스톤 × 휜치)
전화 : 746-3458

미용

킴스미용실
(코리아하우스 뒤)
전화 : 532-7094(B) 438-0628 (R) Mrs.Oh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전화 : 248-2957(B) 247-6875(R)

스타미용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741-4410, (R)742-0827

마야미용실 631 Bloor St. W.
한국관 앞, 서울여행사 이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레이몬드미용실 (주잔: 한국인)
•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로얄욕) 전화: 255-4745

번역및통역

번역, 통역 (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 (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M4A 2R1 전화 : 759-9505 (5시 이후)

백화점

미도파
454 BLOOR ST. W. 전화 : 536-1692

보석

Young S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종조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알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백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생일·파티케익등 전문 (배달가능)
534 St.Clair Ave. W. 전화 : 653-1149 Mrs.배

사무용구및계산기

SBS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보증)
전화 : 252-7377 (R)762-4536 Mr. 안 수일

사진

KIM'S CAMERA 여권사진 즉석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증명사진
619 BLOOR ST. W. 전화 : 534-1085 김 춘 탁

새한칼라현상소 전화 : 535-7772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지개칼라-촬영전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선물센타

거북이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

빅·세븐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생선

K & R Sea Food
전화 : 259-1585
▲얼리지 않은 각종 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소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한국일보 안내광고를 이용하세요.
즉시 좋은 결과를 얻으실 것입니다.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 한국일보 안내광고 * 한국안내광고에서